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선택형 수능이 최초로 도입된 올해 국어영역에서는, 당연히 실전 전략에서 상당한 초기의 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1. 실전연습을 위한 평가원 기출이 없다는 점
2. 22예비평가가 유일한 평가원 기출이라는 점
3. 22예비평가 이래 다양한 신유형 출제 시도가 보임
4. 올해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전연습 경험이 역대급으로 부족하다는 점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쩔 수 없이 17~22 평가원 기출과 사설로 실전연습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2. 근본과 기본기는 결국 어디서든 통함. 따라서 한 장파 이념을 기본으로, 기존 수업 필기 눈복습, 손복습, 원론서 눈복습으로, 매 문제 풀이마다 자세 교정한다는 느낌잡기
3. 실전 연습 시에는 최대한 실전 상황처럼 준비할 것.

본 교재의 흐름을 따라서, 심상훈련을 통해 실전 연습 효과의 극대화를 경험하도록 하자.

본 교재의, 학습의 순서

1. 큰 시험 대비 행동 준칙
2. 한 장 파이널 정독
3. 한 장 파이널 손필기, 머리 입력 및 인출 연습
4. 취약점 분석 및 해법 모색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ebs 연계지문 정리

6. 올해 교육청 및 사설에 실전 적용 연습 하기
7. 실전 연습 직후 문제점 분석 및 해법 모색
8. 22예비평가 및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 강독

선택형 수능 특집

모든 풀이 순서에 따른 경우의 수와 유불리 특이사항

주의사항 아래의 내용은 개인 성향과 시험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바랍니다.

크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음.

선택과목 상관없이

1. 1~45번 순서대로

2. 화작 선택의 경우 (3!=6가지)

- 2-1. 선택 화작 - 독서 - 문학
- 2-2. 선택 화작 - 문학 - 독서
- 2-3. 독서 - 선택 화작 - 문학
- 2-4. 독서 - 문학 - 선택 화작
- 2-5. 문학 - 선택 화작 - 독서
- 2-6. 문학 - 독서 - 선택 화작

3. 언매 선택의 경우 (3!=6가지)

- 3-1. 선택 언매 - 독서 - 문학
- 3-2. 선택 언매 - 문학 - 독서
- 2-3. 독서 - 선택 언매 - 문학
- 2-4. 독서 - 문학 - 선택 언매
- 2-5. 문학 - 선택 언매 - 독서
- 2-6. 문학 - 독서 - 선택 언매

선택 과목별, 7가지를 모두 연습하기에는 시행 착오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최적화 된 순서 잡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이에따라, 간략한 장단점 및 가이드 라인을 잡으면, 다음 페이지와 같다.

- *아래의 상황별 전략 정독, 이해를 바탕으로,
-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 ***자신의 성향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LAP TIME

8:40-1번 ~ 9:55-45번 문제로 거의 비례하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되, 자신의 취약 영역에서는 평균의 150%시간, 시간이 SAVE되는 영역에서는 평균의 50%정도의 시간 흐름을 잡는 것이 바람직.

예를들면,

문학/독서 17문제(+선택 11문항)

독서 17문제에는 2분씩, 36분 투입.(한지문 12분)

문학 17문제에는 1.5분씩, 25분 투입.

화작 10문제에는 1.5분씩, 15분 투입.

(나머지 4분 마킹 및 애매한 문제 결정)

*위의 시간 배분은 예시일 뿐, 분명 자기 자신에게 최적화된, 특히 시험마다의 변수는 존재하므로, 시간-실전 풀이 속도 감각을 살리는 것이 평소 실전연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단,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정독.

추천 순서 1.

1. 선택과목 상관없이 1~45번 순서대로

-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무난한 방법
- 유불리가 없다는 점에서
- risk를 갖지 않아야 하는 큰 시험, 수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임.

추천 순서 2.

2. 화작 제일 먼저 푸는 것이 바람직

- 선택 화작은, 화,작,문,문,독 중 체감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느끼는 영역이므로, 남들만큼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따라서, 마음이 급해지는 후반부 및 남은 시간에 따른 변수가 발생하여 틀릴 가능성이 있는 후반부 보다는, 초반부 시간 투입, 확실한 점수 확보가 중요

- *특히, 정보(내용)난이도가 낮고, 정보(구조) 중심의 출제
- 따라서, 정보(내용+구조)처리 워업(warm up) 이후 독서 이어지는 흐름 전략도 좋음.

단, 문학이 가장 쉽거나, 문학과 화작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독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아래의 내용 정독.

추천 순서 3.

3. 문학 제일 먼저 푸는 것이 바람직

- 문학은 감정에 대한 정보처리,
- 비문학은 이성적 정보처리,
- 따라서, 문학은 논리적이거나보다는 상황 이해 기반, 문학적 관습과 공감 => 가장 적절한 정답 / 오답 흐름
- 이에 따라, 문학부터 먼저 처리하고
- 다른 성격의 비문학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임.
- 특히, 문학이 가장 쉬운 학생은 문학부터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함.

아래는 비교적 추천하지 않는 방법.

비추천 순서 1.

4. 독서부터

- 14 이후, 그리고 명확히 17 이후 킬러인 독서는
- 현재 대치 200명 마감반 단 한 명의 만점자도 없는 상황을 만든 주된 이유.
- 따라서, 높은 체감 난이도일 확률이 명확한데
- 시간/피로도가 초반에 누적되면,
- 상대적으로 점수 확보가 쉬운 문학/선택에서 점수확보가 어려워져,
- 같은 실력대비 낮은 점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짐

추천 순서 4.

5. 언매 제일 먼저 푸는 것이 바람직

-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낮게 체감하기도 하고,
- 정보 처리의 호흡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워업(warm up)으로 활용하기 좋음.
- 단, 특히, 언매 선택자는 일반적으로 ‘언어’파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더욱, 같은 맥락에서 추천

정리

1. 점수 확보가 쉬운 영역부터
2. 시간 소요가 작고, 피로도 누적 작은 영역부터
3. 워업 및 감각 유지가 편한 영역부터
4. 결국은 Case by case 이므로, 많은 실전연습에서의 검증과 감각조율에서 오는 자신만의 순서 접근법을 연습해 볼 것

실전연습 Archive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매 실전연습시 선택한 순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기록해보자.

응시일 :
 응시 순서 :
 시간 부족 정도 :
 풀이의 매끄러움 :
 장점 :
 단점 :

응시일 :
 응시 순서 :
 시간 부족 정도 :
 풀이의 매끄러움 :
 장점 :
 단점 :

응시일 :
 응시 순서 :
 시간 부족 정도 :
 풀이의 매끄러움 :
 장점 :
 단점 :

응시일 :
 응시 순서 :
 시간 부족 정도 :
 풀이의 매끄러움 :
 장점 :
 단점 :

#1. 큰 시험 대비 행동 준칙**I. D-7 행동 준칙****1. 모든 수험생의 실력. 평소의 50% 미만의 실력.**

긴장. 압박. 체력과 정신력의 고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자리.

100%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2. 철저히 매일 매일을 '수능 시험 당일'로 살아가라.

- 매일 실전 연습 + 실전 대응 확립

- 지금까지 모든 공부 복습 + 오답 정리

3. 실전연습**① 시간관리 (Lap time check)**

ex) 8시 50분에는 몇 번 정도를 풀고 있을 것이고... 9시 20분에는 몇 번 짬을 풀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더 늦거나, 더 빠르거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기계적으로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상황노출. 대응. 해법 찾기. (P.C.S) 명문화

ex) 다양한 실전 상황에 노출되고, 문제점, 원인, 해결책을 찾고 명문화하여, 각인. 정리.

4. 복습**① 훑어보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전체)****② 집중분석 (본 교재 및 수강 중 오답정리 성격)****5. 멘탈**

평정심 유지를 위한 방법 찾기. P.C.S

6. 체력

식사. 수면. 보온... 건강관리 요소

7. 리허설 자료 준비

22예비평가 또는, 올해 6월, 9월, 작년 수능으로, 문항별, 페이지별, 시간대별 행동준칙 정립. 이미지 트레이닝.

II. D-1 행동 준칙**1. 전날. 당일.****① 수면시간은 11시 이전.**

- 적정 수면시간은 7~9시간. 7시간을 잔다해도, 11시에는 자야 당일 6시 기상 가능. 2시간 30분 뒤 두뇌 활성화. 따라서 8시 30분 시험 시작에 시간을 맞추기 위함. 사람에 따라서는, 전날 9시에 취침 후, 9시간 수면 필요. 적정 수면 시간 찾을 것.

② 시험장에서는 조용히. 실전 리허설 자료 집중.

- 수능 시험장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갈 확률은 0%라고 봐도 무방(24명 중 상위 11% = 2명 = 2등급)

- 따라서, 주변의 흐름과 느낌은 절대 무시.

- 내 자신의 흐름에 집중.

- 리허설 자료 집중.

- 문제 풀이 순서, 호흡, 모두 내 자신의 감각에 철저히 의존하고 집중할 것.

③ 나만 어렵지 않다. 모든 시험은 독립 시행

-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 해는, 나머지 과목 모두의 평균 성적이 하락한다.

- 하지만, 국어의 난이도와,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독립시행. 확률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심리적 문제가 다른 과목에 까지 악영향을 준다.

- 매 교시, 이전 시험은 잊어라. 리허설 자료로 철저히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집중하라.

2. 수시. 면접. 논술. 모든 남은 전형에 최선을.

- 이제 입시는 정보력 싸움이다. 최후의 순간 까지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한 과정을 놓치지 마라.

#2. 한 장 파일널 정독

舊 언어영역 & 일반에게 국어 문제풀이란?
(당신의 수능 국어가 안 되던 이유)
정보화 혁명 시대

기존 우리의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사고의 흐름

- ❶ 지문을 '나름대로' 읽고(독), 이해(해)하고,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 한다.
- ❷ 기억한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선지 하나 하나의 정오를 판단(주장)한다
- ❸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애매하면, 지문으로 돌아가 선지 판단의 근거를 찾고, 선지를 판단한다.
- ❹ 단어 하나, 조사 토씨 하나, 숫자 하나 틀려서 실수하거나
- ❺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 ❻ 이해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거의 그냥 찍거나
- ❼ 겨우 겨우 정답 찾아 넘어 가거나

위의 사고 흐름 및 문제 풀이 흐름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 중 극히 일부

즉, 주장(선지 판단) + 근거(지문 내용 근거)

라는 사실적 사고 수준의, 내용 일치 차원.

소위 일반인이 말하는 '논리적/논증적' 사고 역시도 매우 일부에 불과한 수준.

수능 도입 초기의 관점 차원.

즉, 30년 가까이 지난 구시대적 관점 & 정체된 관점.

27년 차이. 수능 초창기 수준의 관점 (1994~2021)

조선 개항(강화도 조약 1876)

조선 멸망 시작(일군 주둔. 한일협약 1904)

28년 차이.

개화기 조선, 전근대적 삶을 살 것인가

시대에 적응, 생존, 번영을 이룰 선택을 할 것인가.

수능은 시력 문제, 논리 시험이다? (구시대 발상)

no! 수능은 논리적 사고를 포괄하는,

정보처리 능력 전반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현시대 발상)

新 수능 국어영역(개정교육과정)&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mind set
(당신의 수능 국어 해답)
4차 산업 혁명 시대

수능 국어 영역의 성격 = 국어과 + 도구교과 성격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능력 측정 시험

이성적 정보처리 - 비문학

감정적 정보처리 - 문학

정보의 내용 파악 중심 출제 - 독서

정보의 구조 파악 중심 출제 - 화작문

'국어과' 성격의 논리적 사고 - 문법

글 = 문자 (구시대 관점)

그렇다면? (4th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관점)

글 = TEXT = 정보전달 수단 = 매체

글 = 표, 그래프, 도식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그래서 평가원은 독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음

총체적인 정보처리능력

그렇다면? 평가원이 의도하는 실전적 정보처리 의도는?

전제 1. 80분 45문제
 = 시험은 기본적으로 타임어택

전제 2.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없다면 결국 무쓸모

전제 3.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
 = 이 시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따라서,

평가원의

수능 국어에 대한 mind set

- ① TEXT의 구성원리에 기반하여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 ② 정보가치 판단 바탕 주제 중심으로 정보처리하며
- ③ 정보가치와 주제는 구조와 의도에 따라 결정됨

- 즉,
- 1. 주제(정보가치수 내용) 중심으로,
 - 2. 정보 간 구조와 관계 파악을 하며,
 - 3. 의도와 설계를 바탕으로
 - 4. 처리된 정보 / 이해된 정보에 기반하여
 - 5. 출제자가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으면
 - 6. 정답 선지가 자연스레 보이는 하나의 사고 절차

독서(평가원의 관점觀點)

- 1. 주제 위치 : 첫 단락 + 첫 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 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 3. 구조 - 문단.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 방식+표지(지시/연결),
-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 가치 높음

독서가 막히는 P(problem) 이유 C(cause)는?

- 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
- 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출/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
 -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
 - *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제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대응... 죄다 '라떼는'유형.

그 결과 시간 부족 + 20-6월 만점자 65명 (대치동 200명 마감 반에 만점자 1명도 없음)

S(solution)

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1. 80분 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2. 그런데 정보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나옴.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뭘 상관임? 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똑같음.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

해법은?

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2. 구조, 처리
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

*다음의 한 장 파이널 내용은 21까지의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제작. 6평 이후 22대비 한 장 파이널 갱신 예정 감안하여 활용 바랍니다.

1p 정보전달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평가원 관점觀點)

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구조
2. 1st 문항 설계 = 주제+전개 방식(내용<구조)
3. 2nd~3rd문항 설계에 따라 막히면?
⇨ 구조에 집중
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 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
정보 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

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

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
⇨ 구조에 무조건 집중

cf) 청중의 반응
정보처리규격 :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

cf) 자료 활용
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리했느냐의 싸움

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

1. 괄호에 집중하라

- 문항 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
-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

2. 막히면 내용 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

-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
-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
- 구조 처리 능력을 화작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
- 화작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
-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응 못함

3. 더 이상 논리'만'묻는 시험이 아니다.

- 4. 정보처리 능력 = 정보 가치 판단 + 정보 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

2~3p 상호작용 화작통합형 정보처리공식 (평가원 관점觀點)

1. 대화(상호작용 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 방식** 집중처리

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췌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

3. 특이 유형

cf) 고쳐쓰기 (관련 개념 : 글의 구성 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 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

- 정답 선지- 맞춤법 확률 5% 미만(그것도 언어영역 시절)

- 정답 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

- 정답 선지-macro 문법 파트(그 중 문법요소 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 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뚫기

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췌/기준 잡아 처리)

cf) 자료 활용 유형 (원래 작문 유형이나 통합형 출제 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 가치 높은 선지' = 정답)

3~4p 설득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히

1. 논증구조

필수 : 주장+근거

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주장+근거+예시+ 예상 가능 반론+재반박

2. 비판 유형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

정답 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

정답 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 서술)

논술 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 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 우열 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특히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

21-9평 오답률 top1 비평교육&이본교육

현,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
출제 배경

1. 해석상 미학적 근거 + 문학 교육 목표 합치
2. 문학적 관습의 논리적 근거 확립

비평문

1. 작품 감상의 절대적 준거 : 비평문>작품 내용>보기
2. 문학 개념어 기반 독해
3. 필요시 독서 구조
4. 작품 해석이 제시 ⇨ 철저히 작품 연결 ⇨ 문항 ⇨ 정답 선지

이본교육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작품의 변이, 장르적 변이의
C 원인과, E 결과와, 사고의 절차를 다룸

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 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 방식, 특이한 배경
- ***첫 부분 구성 잡기. 인물 사건 배경 preset 잡기
*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 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람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러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주제는 매우 전형적 서사 흐름 + 구조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

cf) 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동체 => 문학적 관습

문학을 왜 하나고?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

서정 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 능력 향상'

= 정전 교육목표. 따라서...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시상 전개 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 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췌독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서정 장르 접근법 베이스

2.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

3. 전형적 주제

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 치려면 학문해야지 - 학문=수양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물아일체. 매우 뻘함

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근데 이딴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계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

*시랑 똑같음.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데 자연도 좋구나, 방향했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문학'기타'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수필

1. 시 + 소설 + 독서 구조 특징

2. 주제 구성 문제 소재 표현 5요소

3. 깨달음이 주제. 초반부 흐름에서, 마지막 단락 중요

4. 주제 + 흐름 = 깨달음 잡기

희곡-시나리오

1. 서사 장르 기반

2.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함

3. 따라서, 장면 상상 필요, 지시문(내면 심리),

해설(압축 제시. 정보압축. 정보 가치 높아짐) 매우 중요

4. 장면에 대한 상상 필수

과학기술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역대급 지문 우주론 - 과학기술 아님!
(A단락+31번 문제만 과학기술도 아니고 국어과 기반 과학기술'적'사고)

사실은 철학 지문임

2018-6월 동양철학-법제 개혁론

2018-수능 서양철학

2019-6월 서양철학 - 동양 전래

2019-수능 서양철학 - 동양 전래

이 흐름임. 제발 줌. 우주론? 과학기술? 절대 불가.

그래서 만점 148명. 다 수능 터짐. 야..나두. 야..너두?

그렇다면, 최근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 특징과 문제 원인

1. 정보량 폭발
2. 완결되지 않은 정보(생략, 압축, 변형 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해결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 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원리/수학 공식 무조건 처리
4. 때때로 표/도식화/그림 필요

철학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과학기술 지문 내용에서 보이듯

철학의 지문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 + 계속 이어지는데
철학 ⇨ 현상 만듦

따라서, 현상의 본질이고, 이 시대정신들 통찰하길
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바람.

동양 = 서양철학 비교 대조 및 발전 흐름

예를 들면

관념론으로 시작했던 인류의 사상은

신학-철학-자연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

특히, 경험주의/경험론의 발달로 지금의 변화를 가져 온
문제는 동양은 쇠국하다가 뇌피셜하다 망함.

(청/조선/중화사상)

이 = 형이상학 = 원리, 진리, 이상, 도덕, 신, 이데아,
성리학

기 = 자연과학 = 사물, 대상, 구체, 교정 대상, 성리학
미만 잡다학문

이 흐름 잘 잡으실 것.

특히나 2019 수능 역대 지문인 우주론은 위 흐름임

경제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 심지어 교육청 연계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금융’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
 2018-6 통화정책 (이 지문부터 특이점)
 2018-수능 정책수단-오버슈팅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뀐 1997 IMF의 대표 현상 환율 폭등 현상임)
 2019-9월 CDS-P (기존 경제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2008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생상품임)
 2020-3월 주식회사-순환출자 (본질은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태동에 대한 원리임. 이때 나는 3년 안에 나온다 했는데 3개월 안에 나옴)
 2020-6월 대망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정책 이때 다 터져나감
 2020-수능 BIS 지문(적중)
 올해는? (앞으로 3년 내 출제 예상)
 ebs에 ‘금융’자본주의 주제 꽃음

1. 중상주의-고전학파-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 흐름
2. Q.E(양적완화) 원리 다룰 거임
3. M.M.T 현대 통화 이론

결론은, 위의 경제 변동 원리 인과-흐름 잡자!

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경제 지문 출제의도에서 보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한글 문맹이 아니라 ‘실생활지식 문맹’
 관습법 - 판례법 - 대륙법 (법계) 특징

- 따라서, 보통 법률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
1. 예시-원리로 초반부 세팅. 원리 세팅이 중요
 2. 원리의 사례 적용
 3. 문제는, 성문법 적용 과정에 사례별 문제가 따름
 4. 그 해결책

초반부 주제 예시-원리 (법률)세팅	지문 구조는 대체로 왼쪽 구조임 그런데?
후반부는 P-S P-S P-S P-S ... (계속 반복)P-S	왜 2020-9 소유 점유 어려울까? 하향식 독서 모형의 부재 때문!

상호작용식(feat 하향식) 좀 해.
 하향식 독서 모형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상향식 독서 모형 - 단어, 문장, 문단, 글, 글에만 집중하여 정보 처리
 상호작용식 - 둘 다

실생활 연결 지으면 개 쉬워짐

논리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는,
평가원 수능 국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임

최소한, 출제자가 유도한 사고 흐름으로
정답을 골라야 점수를 주는 시험에서
시험 옳니 그르니 같은 논쟁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됨?

물리도, 논리도, 언어도, 경제학도 아닌
수.능.국.어. 즉, 국어교육학 베이스의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임.

내가 정치, 물리, 의학, 코로나에 대해 떠들면 안 되듯,
마찬가지임.

그러면 수능 국어 논리 지문의 특징?

1.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전제
2. '고3'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의 국어 사고, 국어에 관련된 논리 내용을 다룸
3. 하지만, 정보량 폭발
4.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 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문제 발생. 해법은?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 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1과 2를 바탕으로 이해한 원리 적용
4. 정보 관계/구조 중심 필수 처리

문법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피셜 문법 교수학습목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1. 절대로 어려운, 심화 개념, 혹은 몰라서 틀릴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다.
2. 절대로 교과서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수준에서 나온다. (안 믿기면 얼마든 확인 가능! 14~20기출)
3. 평가원 피셜, 중세국어 교수학습 목표
 - ‘현대 국어, 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9개념만 암기. ‘논리적 사고의 수단’
 - 현대국어 VS 중세국어 비교 추론
 -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 한자어/어휘 문맥 추론
 - 거의 정답!
4. 2009개정교육과정 VS 2015개정교육과정
 - 실제 작년 이것으로 복수정답VS정답 논쟁(평가원 연구교수님/평가원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안 보임. 이걸 모른다? = 수능 모른다)
5. 킬러 문항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즉, 평가원의 출제의도 파악 못해서임.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개념과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이면적 개념 차이
6. 독서 통합형. 독서 아니다. 문법이다. 따라서,
 - 문제부터. 문법 문제 개념 적용하듯이
 - 필요한 개념 위주 정보처리
 - 필요시 독서 정보 구조처리

*공부하면, 내신 수준 개념 문제는 누구나 다 맞음.
 *문제는, 킬러/독서 통합/중세국어.
 *문법은 개념/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측정 목적

#3. 한 장 파이널 손필기,

머리 입력 및 인출 연습

한 장 파이널 백지복습

수학 공식과도 같은

국어 정보처리 공식을

안 보고 인출해야

당연히 시험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 장 부터는, 한 장 파이널 내용을,

가급적 안 보고, 자기 손으로 써서 입력하자.

선택 - 화작
1페이지 정보전달의 화법
2~3페이지 상호작용의 화법 작문
4페이지 설득의 작문
평가원의 지문-문항 설계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정리하자.

선택 - 언매

평가원의 지문-문항 설계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정리하자.

독서 통합형, 킬러 유형을 비롯, 자기 자신에게 약한 유형은 특히 집중하여 정리하자.

서정 장르, 서사 장르, 희곡 시나리오 및 교술 장르
장르별 평가원의 지문-문항 설계와 문학 교육의 목표에 따른 접근들을 정립하
자.

독서에 대한 평가원의 지문·문항 설계와 우리의 대응을 정리하자
특히, 과학기술, 경제, 법학, 철학, 논리학, 상호텍스트성, 정보군집등 출제 양상
전반 역시 정립하자.

#4. 취약점 분석 및 해법 모색

앞의 정리 과정에서 느꼈을 것이다.
지금 자신의 공부의 빈자리. 그리고 해야하는 앞으로의 방향성..
...다행이다. 아직 6월이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
아래의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해보자

선택 화작. 1페이지 정보전달의 화법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2~3페이지 상호작용의 화법-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3페이지 설득의 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3페이지 설득의 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선택 언어와 매체 - 문법
기초 개념 숙지 정도 :
개념 위계 숙지 정도 :
기초적인 개념 유형 해결 정도 :
킬러 유형에 대한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서정 장르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고전시가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서사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교술 및 기타 장르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독서 전반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과학기술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경제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법률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논리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철학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나머지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다시 정리하자

*문제와 반성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

*필기를 제대로 하고

*예복습사이클 돌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라 효율을 높일지

*체화를 위해 적용 연습은 얼마나 할지

*이후 원론서로 다시 한 번 감유지, 텐션 유지는 얼마나 할지

*전체 복습 사이클은 언제마다 한 번씩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부족한 영역은 어떤 파트인지

*그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수업을 준비 했는지

*들은 수업 내용을 어떻게 체화 했는지

*들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체화를 어떻게 유지시켰는지

*습관 교정, 잘못된 과거의 언어영역 접근법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전 연습, 시간 관리 전반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17~22 기출을 어떤 자세로 봤는지

*14~16 기출은 어떤 자세로 봤는지

*05~13 기출은 어떤 자세로 봤는지

*ebs 연계 교재는 어떤 자세로 봤는지

*교육청 및 주요 사설 실전 모의는 어떤 자세로 봤는지

*그런 문제들 분석과

*각각의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곳에 정확히 정리해보자.

그리고 올해 수능을 미리 겪어보자.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EBS 출제 예상 정리

독서란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다 (feat. 평가원)

도구 교과인 국어과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평가원은 2017,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독서 지
문에서의 흐름을 확립합니다.

현재 킬러 지문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갖습니다.

- <경제>
- <법>
- <철학>
- <논리>
- <과학기술>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제 지문 출제 흐름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통화정책>
- 2018학년도 수능 <정책수단과 환율의 변동>
- 2019학년도 9월 <CDS 프리미엄>
- 2020학년도 3월 학평 <순환출자>
- 2020학년도 ebs <Q.E-양적완화>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금융위기 전후 정책 변화>
- 2020학년도 수능 BIS

ebs 및 기출 배경지식 전제를 할때의 특징.

1단락에 기존의 배경지식을 압축제시.

문제는.

폭발한 정보량

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정보량

즉, 기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결성이 떨어지는 지문의 특징.

따라서.

평가원 기출-교육청-ebs의 흐름을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전제한 배경지식이 필수.

경제 지문 출제 예상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경제 지문 참조

- 2020학년도 ebs 양적완화-출구전략 지문
- 2020학년도 3월 학평 순환출자
- 2021학년도 ebs 화폐 경제 체제
- 2022학년도 ebs 수특 160페이지 이자율과 총수요

A급

- 2022학년도 ebs 수특 144페이지 완전경쟁시장
+창업의 개념, 기업가 정신
- 2022학년도 ebs 수특 120페이지 리카도 비교우위론

=> 금리와 채권의 관계

- : 채권 매수 =>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 : 채권 매도 =>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이유는?

- 할인율 (2007 수능 기출 참고)
- 채권가격 변동 (2011 수능 기출 참고)
- 주식, 옵션 (2005 수능 기출 참고)
- => 각종 파생상품 (금, 원유, 주식, 채권 등등)
- =>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자산 가격 변동의 원리

경제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다뤄질 지문은 위의 내용과 구조의 연결선상 확률이 매우 높음을 전제하고 학습한다.
4. 특히, 경제 위기에 따른 반응, 양적완화, 출구전략

법 지문 출제 흐름

<법>

2019학년도 6월 <계약자유원칙+비례원칙>

2019학년도 수능 <거래에서의 채권-채무>

2020학년도 9월 <동산의 소유 : 점유>

법학 지문 출제 초창기에 감을 못 잡던 느낌에서,
(2014~2016)

확립된 현행 수능에서는

법학 지문들은 융복합 지문이 대부분.

2017학년도 수능 <보험>

<경제 + 법학>

2018학년도 6월 <울곡 이이의 수양론-경세론>

<철학 + 법학>

2020학년도 수능 BIS

2021학년도 6월 디지털세

2021학년도 9월 행정입법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실
용적 법학 소재를 다루는 흐름.

동시에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 가능성, 특히 과학기술과
의 융복합 가능성 매우 높음

법 지문 출제 예상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법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시효제도

2022학년도 ebs 수특 149페이지 계약지문

A급

2022학년도 ebs 수특 43페이지 상속제도

2022학년도 124페이지 행정관료-책임성-행정법
-법체계 관련 출제 가능

추가로...

=> AI를 비롯, 4차 산업 혁명 소재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대응의 문제-해결 구조의 지문

법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정보량이 폭발하거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잡는 형태의 내용-구조가 엮일 가능성이 큼을
미리 대비할 것.

철학 지문 출제 흐름

<철학>

인류 사상사를 다루는 흐름에서, 중요함은 물론, 어쩌면, 인류의 유일한 유산.

2018학년도 6월 <율곡 이이의 법제개혁론>
<유학+이기론> => 동양 철학

2018학년도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형이상학 vs 자연과학> => 서양 철학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vs 경험론

위의 두 축에 따라,

동서양 모두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철학 사상사를 발전시켜 왔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험주의의 발달,

결국 형이상학을 비롯한 관념론은 도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양 철학과 과학기술은 상호 진보, 동시에, 사회 역시 크게 진보한다.

하지만,

그 당시 발전된 서양 과학 기술이 전래되었음에도,

성리학적 질서에 매몰된 동양은,

서양과학기술을 나름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나,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청나라와 조선은 모두 쇠국, 멸망.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동양 최강대국이 된다.

이런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 사상사의 흐름과 동양에 전래.

이러한 흐름이 확립된 지금은?

2019학년도 6월 <서양 의학의 동양 전래>

2019학년도 수능 <서양 우주론의 동양 전래>

그리고?

물리학, 과학 기술과, 철학의 교섭 연장.

특히,

통일장 이론-초끈 이론으로 이어지는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 결정론의 흐름에서 그에 대항하는

2020학년도 6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

이어지는 흐름은

22예비평가 동일론 - 이월론

이에따라,

철학 지문 출제 예상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철학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신명론

A급

B급

22학년도 ebs 수특 65페이지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22학년도 ebs 수특 73페이지 부와 행복의 관계

22학년도 ebs 수특 77페이지 사전 학파론자들의 토지개혁

22학년도 ebs 수특 89페이지 진보 사관의 형성과 변화과정

22학년도 ebs 수특 93페이지 존재론적 환원주의

22학년도 ebs 수특 101페이지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

철학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최근의 과학기술-AI-멀티버스-가상세계에 관련한 회의론과 철학적 담론을 다룰 가능성이 큼. 기존 기출 연계의 힘이 커지면 킬러로 작용 가능성 매우 높음.

논리 지문 출제 흐름

〈논리〉

철학, 법학,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수준의 평이한 유형도 출제되었으나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특징

완결성이 떨어지는 정보

따라서, 철저하게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 + 출제양상

분석이 필수로 바뀐.

특히, 논리적 사고에 관하여 대중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20 수능에 출제된 베이지주의자에서 시작.

수능 국어에서 출제되는 논리적 사고의 종류는

연역법

귀납법

유비추론

변증법

논증법

비판/반박

에 이어서

확률에 기반하는 베이지주의적 사고

칸트 지문 기반의 문학-관습적 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업에서 다뤘듯이.

평가원에서는

- 개념/어휘력
- 사실적 사고력
- 추론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적용/창의력으로

수능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념/어휘력

독서 정보처리 이론,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등이 이에 속하며, 기출/ebs/고1범교과 수준의 어휘 역시 기본 전제 역량.

사실적 사고력

1.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고
2. 단어 차원의 의미를 파악하고
3. 문장 수준의 구조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고
4. 문단-글 수준의 구조에 따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독자의 배경지식 바탕 글의 내용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과정까지를 규정함.

일반적인 일치문제, 지문에 A라는 정보가 있으니 선지 A는 옳다라는 판단 등에 쓰이는 기초 of 기초.

수학으로 치면 사칙연산 수준의 역량
 문제는, 이 차원을
 독해력의 전부
 또는
 시력문제
 또는
 논리적 사고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문제임.

추론적 사고력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는 엄밀하게 언어(매체에서 쓰이는)
 1. 전제 기반 (기초 개념 기반)
 2. 현상 Data 수집
 3. 전제+현상 Data 바탕 경험적 가설설정 (탐구학습)
 4. 가설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논리적 사고)
 5. 사고 과정에서의 논리 확립
 을 주로 ‘논리’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수학-논리학 용어와 수능 국어에서 겹치는 부분은

- 연역법
- 귀납법
- 유비추론
- 변증법
- 논증법
- 비판/반박

차원임.

문제는, 전제/집합/범위/가정에 따라 참/거짓 판별 혹은 가능성 판별이 되는데

논리학 시험이 아니므로, 절대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 소모를 원치 않음.

따라서, 주제-구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처리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문 분석 및 선지 사고 흐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임.

다만, 필요하다면 수업/해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의 영역을 확립함을 추천함.

그래야 수능에 최적화 된 사고 흐름을 세팅하고 수능 대비 가능.

비판적 사고력

근거 바탕 판단
근거 바탕 비판
등을 비판적 사고력의 영역으로 놓음

논증/비판은 이곳에 속함.

적용/창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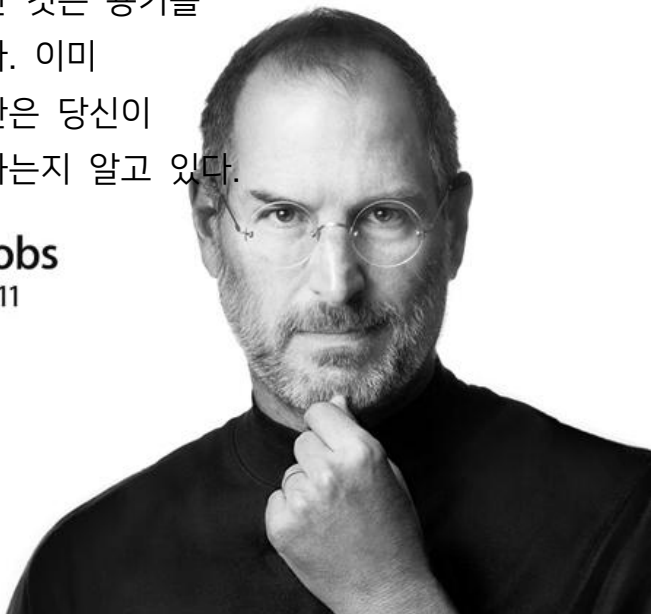
논리/논증의 영역으로 넣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정보들,
사고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 영역으로 넣어
다름.

인간은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둘 다 하는데,

사실, 과학과 인류의 발전/진보는
천재의 직관적 사고가 내딛은 발걸음을
후배 학자들의 논리적 사고로 켜걸음 따라가는 과정에
서 이루어짐.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미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Steve Jobs
1955-2011



그러면 다시...

논리 지문 출제 흐름

철학, 법학,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수준의 평이한 유형도 출제되었으나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특징

완결성이 떨어지는 정보

따라서, 철저하게

1. 주제**2. 구조****3. 하향식 + 출제양상**

분석이 필수로 바뀐
특히 위의 지문 4단락 내용이 이해가 쉽지 않은데,
당연한 것이,
수능 1페이지 정보량으로 압축하여 담아낼 수 없을 정
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과 비약, 압축 과정에서 정
보량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글을 읽어도
읽어도 완벽한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
르는 상황이 벌어짐.

이러한 구조적 불완전성은 과학기술 지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

따라서, 철저하게!

1. 주제 (정보가치슈)**2. 구조 (필요시 도식화)****3. 하향식 + 출제양상 (정보군집 등)**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평이. 단. 이 역시. 구조 잡는 것이 핵심.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정보 완결성 없는 4단락.

하지만, 구조로, 주제로 극복!

2018학년도 9월 <고전/양자역학+고전/비고전논리>

과학 융복합 지문.

역시 5단락의 정보 완결성이 없음.

하지만, 구조로, 주제로 극복!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42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반대관계와 모순관계의 정의가 없음

=> ebs 기출 배경지식을 전제

하지만,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구조'와 '선지간의 논리

적 모순관계 파악'으로 극복

그렇다면?

소재와 상관 없이

1. 정보량은 많은데

2. 정보 처리에 충분한 정보는 없는

3. 완결성 없는 정보제공 지문

=> 극복은?

1. 주제, 정보가치 집중

2. 구조, 흐름 잡으며

3.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

4. 동시에, 구조를 철저하게 처리할 것

=> 정답으로 바로 푼듯 털어지는 경험

논리 지문 출제 예상

앞선, 철학 지문을 참조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논리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다른사람마음문제(논리)

논리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이해의 가능성 보다는, 구조 처리에서 오는 핵심 원리 이해에 따른 선지 판정이 훨씬 유리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

과학기술 지문 출제 흐름

〈과학기술〉

2017학년도 6평 퍼셉트론 - AI 지문

*예술지문이지만, 과학기술 특성 존재

2017학년도 6평 음악의 아름다움

2017학년도 9월 콘크리트

2017학년도 9월 사단법인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이렇게 흐르는 흐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함. 위의 지문들 자체가, (물론 이전과 이후의 평가원 구조적 특성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의 활용이라는 현행 수능에서 가장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으로 지문의 시간과 난이도가 똑똑 떨어지는 경험보다는, 뭔가 발췌독이 많아지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많게 느껴질 것임.

하지만, 역시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 + 출제양상은 물론

1. 주제 - 흐름
2. 문장수준
3. 글의 구조
4. 출제양상

이 4가지 정보처리 규격에 맞추어 접근시 역시 난이도 낙차가 똑 떨어짐.

그렇다면 주목할 지문은?

2017학년도 9월 열효율

- 논증구조가 있는 지문으로 논증구조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정답의 정확한 단서 확인이 불가능함.

이유는?

1. 정보 완결성 없음
2. 정보는 많음
3.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니 몇 번을 다시 읽으며 시간 지연, 이해는 되지 않고
4. 문제 풀며 발췌독하다 운 좋게 선지 골라내는 느낌으로 풀게 됨.

이런 예전의 접근법으로는 더 이상 현행 수능은 시간 안에 풀 수도, 백분위 100에 다가갈 수도 없음.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고전역학-양자역학-양자컴퓨터-고전논리-비고전논리로 이어지는 지문,

2019학년도 수능 서양우주론의 동양우주론 전래와 같이

과학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이슈가 아니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 이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로서

사실상 읽지 않아도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없는 정보군집-단독문항 출제 양상을 갖게 됨.

그렇다면?

이 지문들에 주목!

2018학년도 수능 부호화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020학년도 9월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

위의 3지문의 특징은

역시,

- 1. 정보량은 많은데
- 2. 정보 완결성이 떨어져
- 3. 정보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
- 4. 우리의 기존 접근법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지문

하지만

- 1. 주제
 - 2. 구조
 - 3. 하향식과
 - 4.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선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019학년도 9월 STM

마지막 단락에서 보통 터지는데,

마지막 단락 내용은

- ❶ 구조
- ❷ 과정
- ❸ P-S 구조

의 구성이고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 공략이 매우 쉬워 짐.

2020학년도 6월 개체성

1~2단락 정보군집

3~6단락 정보군집

으로 주제 복합적 구성임을 확인

동시에,

사실상 41번 문항은

- ❶ ebs 연계 배경지식
- ❷ 최고수준의 피지컬

이 아니면 뚫을 수 없음

그래서 27년 수능 역사 최악의 오답률

만점자 65명이 불과하는 시험이 된 것임.

하.지.만.

역시나,

도식화

이를 바탕으로한,

접근들은 있음.

문제는.

기존의 수능 접근 틀

+

현재의 수능 접근 틀

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실전에서 피지컬로 뚫어낼 사람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야함 (물론 정답률은 15%이지만, 만점자는 65명이고, 이는 수능 국어의 특성상, 잘못된 사고로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야하고, 잘못된 사고로 문항 하나 하나 통계적 확률을 구하면, 결국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여, 만점자 65명이라는 결과로 귀결됨)

과학기술 지문 출제 예상

앞선, 철학 지문을 참조

S급**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과학기술 지문****참조**

2020~21학년도 ebs 지구냉각설, 오로라(구조 처리 참조)

22학년도 ebs 수특 199페이지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차량 기술 - 센서 기술은 이미지 센서 기반 Big data - Machine learning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위의 수업 바탕 정립 필수.

A급

22학년도 ebs 수특 182페이지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세계선

22학년도 ebs 수특 196페이지 빛 뿔의 원리와 활용

과학기술 지문 학습법

1. 소재의 연계 보다는 구조의 연계가 핵심이며
2. 정보가치 판단에 따른, 핵심 원리 이해 적용 유형이 추가 됨.
3. 어휘력과 기출 소재 연결이 안 잡혀도 난이도가 치솟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출은 05기출까지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학습법이 될 수 있음.

다.시.말.해!

이 지문들에 주목!

2018학년도 수능 부호화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020학년도 9월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

위의 3지문의 특징은

역시,

1. 정보량은 많은데
2. 정보 완결성이 떨어져
3. 정보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
4. 우리의 기존 접근법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지문

하지만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과
4.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선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019학년도 9월 STM

마지막 단락에서 보통 터지는데,

마지막 단락 내용은

- ① 구조
- ② 과정
- ③ P-S 구조

의 구성이고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 공략이 매우 쉬워 짐.

여기에 주목.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개체성은

현실적으로 ebs 배경지식의 어느정도 활용이 있지 않았으면, 접근 불가.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므로,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할 문제는 아님.

=> 과학 기술 출제 가능 소재들은?

1. 양자 터널링 효과

이는 무어의 법칙과 관련하여, 한계로 지적받는

내용임과 동시에,

전자/양자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확인되는 불확정성 원리와 연결 됨.

동시에 양자 컴퓨터의 원리와 관련한 내용까지 엮여 출제 될 수 있는 소재임.

2019학년도 9월 STM의 원리

2018학년도 6월 고전역학~ 지문의

양자역학/양자컴퓨터 관련 내용과도 관련이 깊음

2. 초끈 이론 -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완성하지 못한 통일장 이론은 모든

물리적인 힘, 4가지가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된다는

입장인데, 우주를 11차원, 모든 물체를 1차원 존재로

보면 성립하는 이론임.

양성자/전자를 분리해 나오는 소립/미립자-쿼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음.

배경지식의 중요성 보다는, 구조,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할 것.

3.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크롤링, 자율주행, 데이터 구조

흐름상 출제될 수 밖에 없는 소재들임.

특히, 양자컴퓨터-보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음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해시함수,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등)

-문학

사실 문학은 지금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이 약 500+ 작품 수준에(같은 작품 출제도 카운팅 시) 이르는데, 반복 출제 확률이 70%임. 즉, 출제 3작품 중 2작품이 이미 평가원 기출 확률임. 따라서, 기출 작품 학습이 우선임.

무엇보다, 작품의 전체 주제와, 평가원에서 출제 할 때 발췌한 부분의 주제가 다르거나, 작품의 해설을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작품 감상과 접근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음.

따라서, 문학 연계 부분은 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있다면, 최근 기출의 출제 양상을 명확히 인식 한 뒤에 접근할 것.

18~20학년도라고 해봐야 지금까지 8회, 즉, 장르당 많아야 8회 정도 출제가 전부임. 따라서, 원론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절대로 적은 내용이 아님. (심지어 수업을 몇 개월씩 들었는데도, 질문하라면, 원론서 작품을 질문함...)

따라서, 소설론-시론-고전시가론 정독을 바탕으로 - 6평 리허설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 필수.

또한, 출제시 ebs 수록 부분을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다른 파트를 내는 경향이 매우 강함. 따라서, 해설지 참고 필수

무엇보다 최근은 수능 출제에서, 문학사적 가치, 작품의 해석 능력 평가를 주목하지 않음

서정장르의 경우 '공감'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서사장르 역시 '장면의 함축된 의미 파악'이나, 작품의 구성적,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론서 바탕, 구조 잡는 연습이 필수.

-출제 예상

최인훈 광장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현기영 손이 삼촌
이호철 나상
염상섭 만세전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이상 날개

최석환 라디오 스타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신석정 들길에 서서
고정희 우리동네 구자명 씨
한용운 해당화
박재삼 한
박용철 떠나가는 배
김용택 들국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수영 폭포
최두석 성에꽃
곽재구 사평역에서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김종길 성탄제
이육사 광야

청산별곡
속미인곡
만전춘별사
채봉감별곡
구운몽화왕계
국순전
호질
열녀춘향수절가

여기까지 소재에 관한 내용을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수능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

1. 시간 안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정보량
2. 훈고주석의 우리 독서 전통을 깨야 함
3. 이 과정에 고착화된 매우 잘못된 우리의 정보처리 습관을 고쳐야 함
4.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길러야 함.
5. 동시에 다변화된 사회에서 어려워진 공감능력을 길러야 함.
6. 비판하는 방법을 익혀야 함.
7.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함.
8. 국어사 학습은 현대 국어 문법 현상의 논리적 설명 도구임을 알고 활용해야 함.

이를 정리하는 것은

원론서 전체 복습 + 수업 내용 전체 복습

=> 한 장 파이널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볼 것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리보기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01~03] 정보전달의 화법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월 평가원)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 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정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선지 자체가 내용이 아닌 **구조**로 출제됨.
 따라서, 지문 정보처리를 구조로 좌측 여백에 필기로 처리해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존 수험생의 사고 흐름

- ① 지문은 이미 내용으로 처리
- ② 하지만, 선지는 구조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즉각 판단이 안 됨.
 ∴ 선지에 들어가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 + 지문 **내용**
 ⇔ 선지 **내용** 매칭시킴

운이 좋게, 판단이 되면 모르겠으나,
 특히, 수능 당일의 신중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단어, 조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의도/설계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결과, 뭔가 fit하게 들어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음.

- ③ 신중한 성격일수록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로 다시가는 과정의 반복 ∝ 시간지연 ∝ 정보처리 복잡성 ∝ 때때로 혼란 가중 ∝

하지만, 화작문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 설계대로 접근하면?

1.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화작문 정보처리Formula>

- ① 독서 **구조처리** +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 ② 1st 문항은 **주제+전개방식(구조)** 묻는 설계
- ③ 2nd ~ 3rd 문항 역시 결국 **주제+구조**
- ④ **매체, 특히 (괄호) 주의**

위와 같은 정보 처리 공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 풀이 흐름이 생긴다.

첫째, 학습자가 알 수밖에 없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의 화작문 '내용'과 '구조'가 제시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소비가 줄어들는다.

단, 이 부분에서 화작문 시간 지연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습관(routine)의 문제이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은 속발음, 어휘력 부족, 배경지식 부족, 상향식 독서 및 하향식 독서 모형과정에서 협응 부족으로 인한 정보처리의 혼란함과 시간지연이 생긴다. 해법은, 긴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내공을 쌓는 수밖에 없으나, 지금 이 시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복습'이다. 그래서 그렇게나 수업시간에 복습을 강조하고, 복습 설계를 진행한 것이다. (아! 그럼 망했어요? that's no no) 마지막 복습, 올해 6/9평가원 구조 처리를 1~3회 이상 반복한다. 식상해졌는데, 연습이 더 필요하다면, 22예비 평가, 작년 수능, 작년 6/9 다시 구조 분석한다. 배운대로, 하다보면 느낄 것이다. 시간이 줄어드는 구나. 물론 마지막에 1~2회 이상의 실전연습으로 생소한 지문으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핵심은, 화작문 시간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고, 위의 첫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습관 및 내공 부족으로 인한 화작문 정보 처리 속도의 지연 문제는 올해 6/9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해결한다.

둘째, 선지에서 묻는 정보처리 형태는 '구조'에 대한 key data 이므로, 이미 '구조'로 처리했다면 fit이 들어맞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지연, 주저함, 피로도, 실수, 모든 부분에서 이득.

셋째, 신유형도 결국은 주제+구조로 집중하면 출제자의 의도와 설계가 보인다.

1-2.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해설 교재 마지막)

(배운대로, 시간 재며 평가원 정보처리 공식 적용 후 우측의 필기와 비교할 것. 또한 연습이 더 필요한 경우를 위한 추가 문항 및 해설 역시 교재 마지막에서 다시 제공.)

2021-6월[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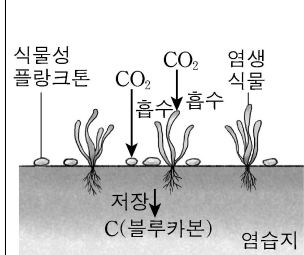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2021-6月[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안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블루카본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경험. 공감 (Q)

통계 수치 근거 (S1, S2)

주장 (S3)

예반 (E)

통계 수치 근거 (S1, S2, S3)

수치 근거 (S1, S2, S3)

간접기 비유(은유)? (S1, S2, S3)

대체가 아닌 S1S2+S3 역시 구조!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자.

신유형. 역시 주제 정보가치 높은 정보!

[04~07] 상호작용의 화법+작문 통합형

18 이후 확립된 화작문 통합 유형으로, 1회의 예외가 있으나, 이제는 전형적으로 대화 지문 + 화법 작문 통합형.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2.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담화의 특성상 맥락과 표면적 정보가 아닌 '이면'적 정보, 즉, 내용을 곧이 곧대로 보는 것은 이미 초등, 중등과정에서 충분한 연습이 끝남. 따라서, 이면적 정보처리-구조 처리가 필수임. 특이한 구조가 제시되면, 주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월 평가원)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4번 문항은 구어담화와, 문어담화의 차이를 묻는 개념 묻는 문항이며, 5번 문항은 역시나 전개방식/구조 처리를 묻

는 문항임. 내용을 전혀 몰라도 출제의도/설계가 확인 되듯,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내용일치'로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님. 내용 일치로 풀릴 수가 없고, 사실은 개념+구조로 털어낸 것인데, '무의식'에서 작용한 구조+개념(상식)처리를, 상위인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내용일치로 풀었다고 착.각. 하는 것임.

우리는 사고(思考, thinking)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내용을 묻고 있지? 구조나 전개방식 또는 개념을 묻고 있고, 실제로 문제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임. 당신이 출제자라면, 초등학생도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고3 대상으로 출제할 이유가 있을까?

기존 수험생의 사고 흐름. 역시나...

- ① 지문은 이미 내용으로 처리
- ② 하지만, 선지는 구조/개념 구성되어 있으니 즉각 판단이 안 됨. ∴ 문제 읽고 선지에 들어가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지문 내용** ⇔ 선지 **내용** 매칭시킴 운이 좋게, 판단이 되면 모르겠으나, 특히, 수능 당일의 신중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단어, 조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의도/설계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결과, 뭔가 fit하게 들어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음.
- ③ 신중한 성격일수록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로 다시가는 과정의 반복 ∝ 시간지연 ∝ 정보처리 복잡성 ∝ 때때로 혼란 가중 ∝

하지만, 화작문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 설계대로 접근하면?

2.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작문 통합 유형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화작문 통합형 정보처리 Formula>

- ① 대화는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구조 **딱세계**
- ② 문제부터 확인, 정보 **군집** 확인
- ③ 문제부터 확인, 처리 방식 달라지는 정보 **확인** 단, 지문 세부내용은 문제에서 **확인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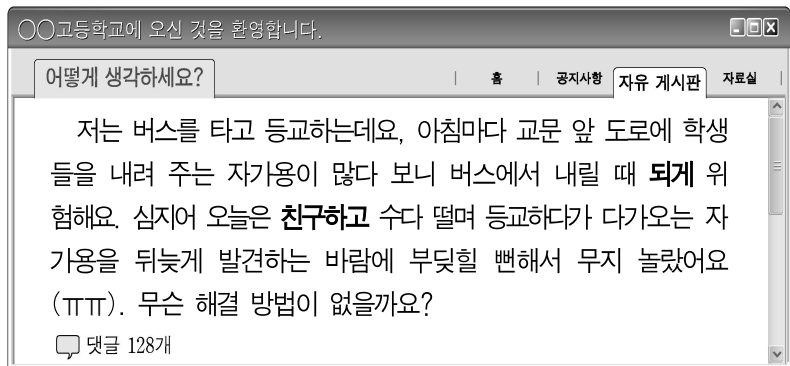
예를들면, [A]괄호가 있는 경우, 호흡을 끊고 바로 문제로 와도 무방. 최근에는 (가)/(나)와 같이 지문 단위 호흡 문항이 대부분. 정보량이 많고, 특히 대화는 정보 흐름이 산발되므로, 구조/정보처리를 놓치기도 하며, 대화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 하나 확인하고 왔다갔다 하면 무조건 시간은 심각하게 지연됨.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 mind set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한 정보 근거로 정답선지 **쑵아** 내는 사고 흐름임 기억

지문 근거 ⇨ 선지 판단. 이거 아님.
 지문 정보처리 ⇨ 의도/설계한 당연한 정답 선지 찾기.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생 1 :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학생 2 :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학생 2 :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학생 1 :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학생 3 :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학생 1 :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학생 2 :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학생 3 :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1 :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3 :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협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2 :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학생 1 :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 물론 건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일
 ○○고등학교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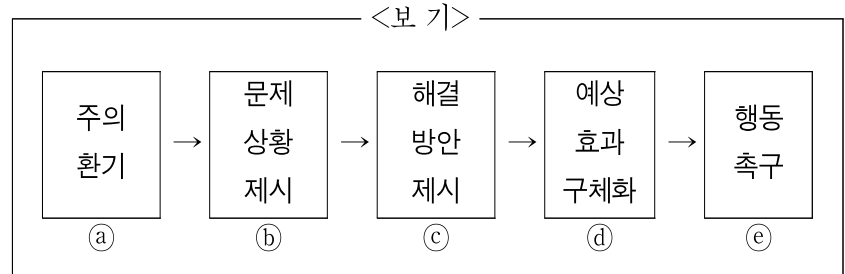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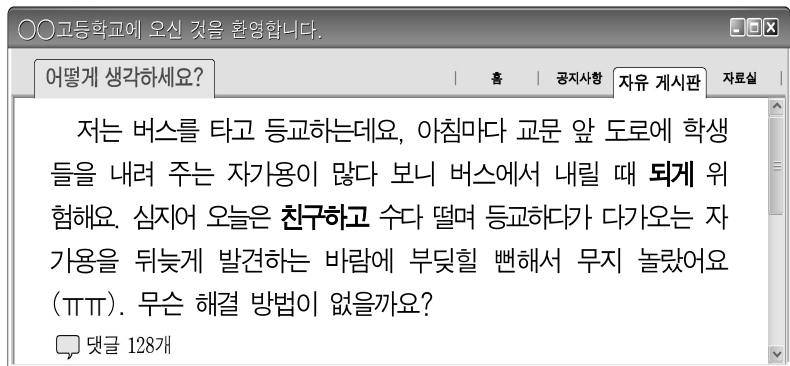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에서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갯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나)에서 등갯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가)는 경험담

학생 1 :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Q. 도입

학생 2 :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Q. 주제

학생 3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A. 동의

학생 1 :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주장

학생 2 :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예시+반박

학생 1 :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근거+재반박

학생 3 :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근거+반박

학생 1 :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 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근거+재반박

학생 2 :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근거+반박

학생 3 :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합의/대안 제시

학생 1 :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을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합자기?

학생 3 :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협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표현하기 유형!

학생 2 :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글의 전개

학생 1 :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이야. 경험 상기

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통계 자료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Q. 경험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통계수치

㉣ 물론 걸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안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장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일 ○○고등학교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도/설계는 내용확인 아니죠. 개념. 즉,

구어담화 특징 : 비격식, 줄임말, 자유로움

문어담화 특징 : 격식 + 나머지 특색 반대.

근데 이걸 상식 아님?. 3번 제외 전부 확인. 정답 3번

구어 담화 : 참여자 모두가 한 자리

문어 담화 : 글로 보는데?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 nono 정답!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중의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④ (가)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다)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4번 문항의 의도 설계, 오답 유도는, 구어vs문어 + 친교표현의 비격식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분류, 즉

	(가)	(나)	(다)
담화상황	문어	구어	문어
어투	구어체	구어체	문어체

하지만, 그냥 상식 접근 clear.

(나) [A][B] 구조 정리하면,

학생1 vs 학생 2+3 구도= 논증구조 = 근거+반박에서,

마지막에 학생3이 합의점 도출.

내용 확인은 추후 시간 가지고 확인하면 됨.

출제의도와 설계가 구조이니 구조에 집중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1'은 '학생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1 vs 학생 2+3. 바로 out

- ② [A]에서 '학생3'은 '학생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학생1 vs 학생 2+3. 이외의 내용 없었는데? 확인 바로 안 되지만, 일단 out.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논증구조에서 다수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게 '근거'가 될까?

- ④ [B]에서 '학생3'은 '학생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2+3은 동맹인디? 마지막 합의를 이렇게 쓴거? 역시 out

- ⑤ [A], [B] 모두에서 '학생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1vs2 확실하고, Q-A구조 잡은 것 확실하고.

그렇다면 좁히고 발췌독! 역시 정답!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보기- '경험'은 '감성'이라고 해놓고? '전문가' 의견 '이성' 연결?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보기- '경험'은 '감성' 정답!?!... 그래서 구조 잡으라고! 좀!

대비? no no 공통.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네. 수치-객관-이성. 너무 편안한 정답이구요. 95% 좁히고

지문 가서 나머지 5% 확인. 정답!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이게 맞나? 하면서 가면 시간, 정확도 다 손해라 했음.

예상가능한 반례. 즉 예외사례 제시했던 구조네! 하고 넘겨야죠?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표현법이 이상하긴 했는데...

설의? 반어? 네... 개념에서 정답 확률 13% 미만.

이미 3번이 특정 되었는데 시간 많으시면 확인하시고...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나저나 이 표현법은 뭐징?

이중부정? 촌데레 화법? '님은 제가 싫으신가요?' 뭐 이런?

설의? 이러다 터지는 거임... 제발 좀. 왜 답이 명확히 나왔는데 틀린 것 틀린 이유를 찾아?? 능지 순임...

굳이 옳게 고치자면,

㉞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문제상황을 상기하며,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설의적 표현

입

그런데?

이거 서울대 국어교육과 4학년 수업에서도 뭐가 맞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 날 선지임.

주장+근거 만 갖추면 논리의 기본은 갖춘 것이라 반박 매우 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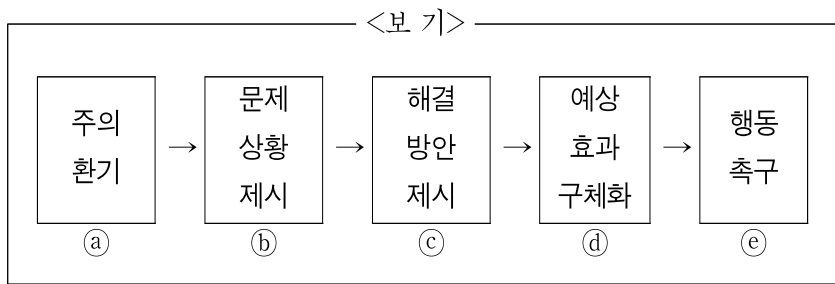
제발 문항 설계와 의도를 이해하면서 답 특정하는

평가원 mind set과 사고 흐름 잡아가야지.

방구석 전문가들 분석질 no no

여러분은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크셔야죠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구조는 거의 맞음

화제-도입-경험

② ㉡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는 거의 맞음

화제-도입-문제 제기

③ ㉢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상가능반론-예외사례...인데 이게 해법이라고? 정답이네. 99% 특정 후, 1% 발췌독.

그리고 집 머니까 차타고 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라고? 도대체 뭘 근본 없는 째소리신감

④ ㉣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장점 제시 dz

⑤ ㉤ :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제안. 실천 촉구 dz

100% 특정은 안 되는 오답선지들이라도

이미 정답이 100% 특정된 3번인데, 시간들 많으신가봐요.

아니, 능지순이라니까.

저거 다 확인하고 있으라고 낸 시험인데 시간이 80분?

생각 좀 하고 삼시다...

평가원은 제발...

이미 지문에서 주제+구조+의도한 사고 흐름 잡았으면

정답 선지 특정 시키는 것 뿐임.

제발 위와 같은 사고 흐름으로 최근 기출들 분석하면서

사고 흐름 잡아주세요.

그게 연습 되면 무조건 시간 줄어들

정답률이나 피로도...

[08~10] 설득의 작문

17 이후 기출 중 단 한 세트 제외한 전체가 설득의 작문.

1. 영역별 출제 의도와 목적
 설득 = 논증구조중심
 독서 : **내용(중심)** + 구조
 화법+작문 : 내용 + **구조(중심)**
 따라서, 화작문의 정보처리는 구조중심이어야만 함.

9.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월 모의고사)

- ①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문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④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⑤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걸 보고도, 이걸 풀고도, 구조 중심의 처리를 안 하겠다면, 내용 중심의 처리만 하겠다면...

3.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작문 영역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작문 정보처리 Formula>

- ① 논증구조 = 주장+근거
 (도입) +
 주장 + 근거
 + (예시) + 예상가능 반론 + 재반박
- ② 구조 처리 중심으로 접근 할 것.
- ③ 유형별 접근 틀 확립 할 것

예를들면, 고쳐쓰기 유형은, 해당 정보를 처리할 때 ① 글의 구성원리(80%), ②macro 문법 사항(20%)을 확인하며 접근. 맞춤법 같은 딱한 문제 어그로 끌리지 말 것.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19수능 로봇세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수능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중략)…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

[A]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을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을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 (중략) ...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 특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지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banking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부여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 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목적, PS구조 정답**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을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을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반박. 근거 예시

①범주 ②반대주장

당시, 이슈가 있었던 문항인 만큼 상술 하겠습니다.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능 시험범위인 ‘교육과정’에서 는 일반적으로 화법의 본질, 작문의 본질, 독서의 본질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① 의사소통 행위
- ② 문제해결 행위
- ③ 지식구성 행위

즉, 문제 해결행위.

그러나, 문제

- ① 학생들이 잘 모르고,
- ② 목적을 궁금해하고,
- ③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고,

그 해결은

- ① 학생들이 잘 모르니 설명해주고
- ② 목적을 궁금해하니 답해주고
- ③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으니 논증구조로 반박해줍니다.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입)**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제-해결)**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문제-해결)**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문제-해결)**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중략)…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위와 같이 주제 세팅 되는 1~2단락 초반부 까지 도입. 당연히 그 사고 흐름을 잡는 문항이 이어집니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내용 일치로 접근시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이 기억이 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2번 선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고...

이러다 답이 안 보여서 시간, 실수, 정확도... 모든 것을 손해 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잘 푼 학생도 있지만)

출제 의도와 설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낼 의도 엿을까요?

고3 시험에? 쟁민이들도 시간만 있음 풀 문제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거 잡아 접근??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 도입 목적을 궁금해 하니

로봇세 도입 했을 때 장단점이나 전망 이야기 해주면 문제 되나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이나 2번선지 같이, 로봇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세 도입에 따라서, 로봇세 도입의 목적에 따라서, 안락한 삶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논리적 문제는, 그렇다면, 모든 문제 풀이시에 항상 점검 하셔서 적용하시는 접근 기준인가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때가 되셨습니다.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상황 P-S 로봇세 개념을 모르니P-S설명하면 됨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상황 P-S 로봇세 도입 목적 모르니 P-S설명하면 됨

특히, 도입 목적 P:로봇으로 일자리 잃음 - S:지원

㉣작문 상황의 구조

1단락 도입 단락의 구조

구조 + 구조 뺀세계 잡아주심 깔끔하게 의도 확인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상황 논증구조로 반박

주장 : 로봇세 도입 반박

근거 : 로봇세 도입의 문제점 + 로봇 도입의 문제 없음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즉, 구조로 킬었을 때 2번 선지는 전혀 상관 없음이 보이면서 바로 편하게 정답! 특징!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 (중략) ...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기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위와 같은 처리면 충분)

	㉠	㉡	㉢	㉣	㉤
로봇 문제 = 로봇세 찬성	○	○	△	✕	○
로봇 장점 = 로봇세 반대	✕	✕	△	○	○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 로봇의 문제
지문 구조 : 도입부
정확. 편안.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 로봇의 문제
지문 구조 :
주장 : 로봇 찬성 입장 = 로봇세 반대 도입부
근거 : 불공정과세, 이중과세, 경제적 손실
정답 끝!

보이지죠? 내용일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논증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이고, 내용은 독서에서 충분히 묻고 있으니... 구조 중심의 출제.

- ③ ㉢를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를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유형은 암기바랍니다.

- 1. 반대 서술
- 2. 범주

즉,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를 해야 비판이고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야 비판입니다.

— <보 기> —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C : 로봇 도입
E.P : 일자리 대체로 인한 문제 발생
S : 로봇세 도입

이라는 지문에 언급된 내용 선상의 흐름이 <보기>에 있고

[A]에 대해 반박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예상가능 반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근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반박)** 산업 혁명**(반례)**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반박 = 주장 다시 정리)**

A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반박 해놓고 혼란 가중시키는 유형이 있었고, 이는 비판 유형 기본 유형을 놓쳤을 때 발생합니다.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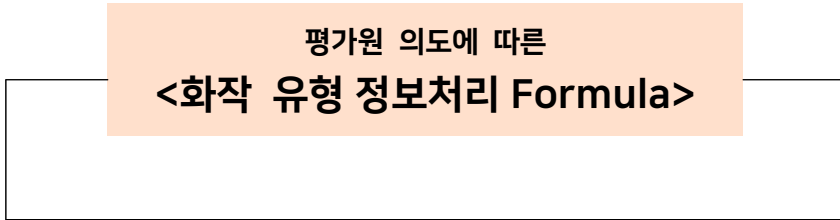
[A]의 주장 + 반례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A]의 주장 + 반례 에 대한 반박. 정확. 정답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화법 작문 세부 유형별 사고의 흐름과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구조 유형
- ② 화법에서 (자료)의 성격-내용-구조 연결
- ③ 신유형 - 결국 주제 구조
- ④ 비판 유형
- ⑤ 고쳐쓰기
- ⑥ 표현하기
- ⑦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① 주제+구조 유형

지문의 독서 정보 구조 처리.
지문 내용 자체는 이슈 없음. 전형적임.
구조는 매우 중요.

② 화법에서 (자료)의 성격-내용-구조 연결

특히 팔호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관련된 내용-구조는 매우 중요.

③ 신유형 - 결국 주제 구조

신유형 역시 결국은 주제 구조로 킬면, 의도 설계가 노골적으로 보임

④ 비판 유형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 서술 + 상대방이 언급한 범주에 대한 비판

⑤ 고쳐쓰기

글의 구성원리 관련 내용 + 문법적 사항 디테일하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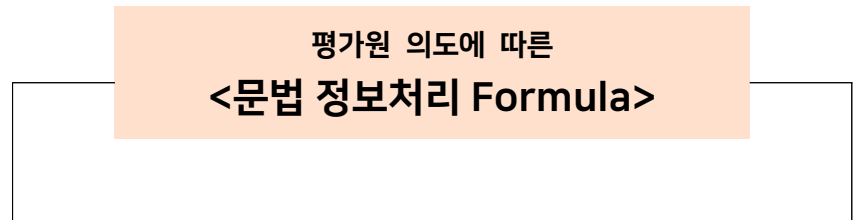
⑥ 표현하기

내용+표현+형식 조건 하나 하나 확인 정보 확인 독해(내용일치 ok)

⑦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생성

지문의 주제에 관련하여, 찬/반/가치 중립을 나누어 구조 잡을 것

5.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문법의 유의사항과 세부 유형별 사고의 흐름과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문법 교육의 목표 : 기초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② 문법-국어사 학습의 이유 : 중세국어를 통해, 현대 국어의 논리적-통시적 설명을 위함.

③ 내신 수준의 평이한 개념 적용 유형

④ 독서 통합형

⑤ 국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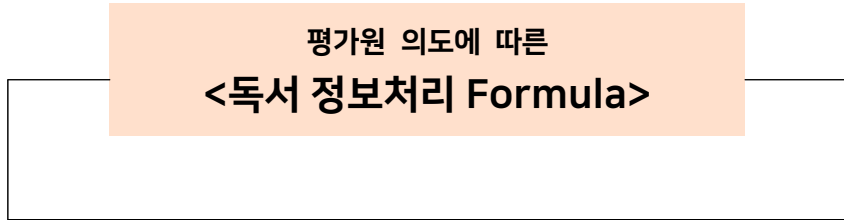
암기는 9개 이상을 묻지 않음. 즉, 암기 문항이 아니라 비교 추론 문항임.

⑥ 킬러

①의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정확히 암기 바람. 또한 확인 바람. 이와 관련해서는 문법원론 / 파이널 문법 보충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자료 참조 바람.

단, 리허설 교재의 목적을 위해 일부 대표 유형만 신고 설명 예정.

6.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

② 미시 정보 구조 - 문장 구조

Syntax 적용

③ 거시 정보 구조 - 문장+문장, 문단, 글, 글+글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글의 전개방식 - 정태, 동태, 논리 / 시간 / 공간

④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특성 파악 / 활용

원리, 인과, 수식, 표, 그래프, 그림,
독립정보군집 - 독립 문항,

⑤ 소재별 접근

철학-논리-법-과학기술-경제로 이어지는 킬러와
예술로 이어지는 평가원의 mind set
인문-사회과학으로 그린 큰 그림.

읽고 (독) 이해 (해)

즉, 독해 차원에서 '글'을 바라보는 근-현대적인 관점에서,

어휘-개념능력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적용-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능력, 즉 '사고'력 측정 시험으로...

이제는 융복합, 4차 산업혁명'행' 능력을 측정,

인재를 선발/평가하는 시험으로...

'글'이란 문자(한글, 알파벳)가 아니라

'Text'

그래서 단순히

주제 통합적 독서로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상호텍스트성'으로 잡는 것임.

그렇다면 텍스트에 대한 정의는?

텍스트 = 문자는 물론, 모든 매체 정보

따라서, '국어'인데 시각자료, 그래프, 도표, 그림, 동영상 등등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출제/정보처리를 요구하고 사 고의 흐름을 잡는 것임.

우선 주제에 대하여.

'글'이란 주제 전달 목적을 위해서 존재함.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류의 존재 목적을 DNA의 전달로 보듯이, '글'은 글쓴 사람의 생각-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큼. 문제는,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과 일방적인 정보전달은 당연히 왜곡을 가져오게 됨. 하지만, 이미 평가원에서는 우리와 상당 부분의 mind set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이 ebs와 기출임. 문제는 그 기출과 ebs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 역시도 원문서-자료 정독을 하다 보면 잡히는 부분임. 다른 방법으로 극복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그 학생의 피지컬이 어마어마해서 될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보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임. 우선 상향식 독서, 즉, 단어 차원에서 의미가 전달되면서, 문장 수준의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를 기준으로 의미처리를 하게 됨. 문제는 문장 자체를 곱씹는다고 의미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어휘력, 배경지식, 경험, 문장 구조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처리한 결과임. 초인지-메타인지-상위인지 능력은 0.1% 정도가 가지고 있음. 바꿔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능관련 정보의 99.9%에 가까운 수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솔직히 수능 기준 상위 0.1% 속했던 사람이 지금 강사라는 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보처리가 안 된다면, 어휘의 의미, ebs와 기출 연계된 내용, 문장 수준의 구조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시 다시피, 문장 수준의 구조 처리를 통한 내용 이해는 시간을 어마 어마하게 소진하여, 절대로 80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접근법이 됨.

따라서, 철저하게 글의 구성원리, 즉,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배운 구조를 활용, 정보가치를 판단하여, 주제를 좁히고, 주제 중심의 내용이해와 구조처리를 가져가야함.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80분이라는 시간을 근거하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최대한 주제 집중하여 A-B급 차원의 정보 처리가 의도 됨. 단, B급 정보 역시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표그리기, 그래프 처리, 그림 그리기, 도식화 등의 방식으로 정보 후처리를 진행할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 단계성, 강조성, 응집성, 완결성 바탕으로 구조 처리를 진행
- ② 주제 -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임
- ③ 의도-설계 파악 + 하향식으로 정보처리하여 결국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 내용과 구조 처리 필수
- ④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처리가 되어 있고, 결국 정답 선지가 매우 쉽게 특정되는 사고 흐름임.

올해 6/9평 중 주요 지문에 적용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 가능.

7.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문학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원 의도에 따른
<문학 정보처리 Formula>

- ① 비문학 : 이성 처리 vs 문학 : 감정 정보처리
- ② 정답스펙트럼, 즉, 전통적 인식론이 아닌, **베이즈주의 논리**
- ③ 이성과 감정의 차이, 즉 칸트의 미적 감수성 **문학적 관습과 평가원의 문학에 대한 mind set**
- ④ 장르별 접근틀 암기/적용/체화/실전몰입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
+비평교육
+이론교육
장르별 상황별 대처법
- ⑤ 킬러 유형
서사 장르
- ① 20-6평-25번 큰잔치, 19-수능-43번과 같이...
대화의 주제 파악

- ② 20-6평-25번 큰잔치, 19-수능-43번과 같이...
미시 문장구조를 바탕으로 의미 파악

- ③ 표면적 정보 근거, 이면적 정보 파악

- ④ 장면 vs 장면으로 중심서사-갈등 파악
- 고전 시가
- 너무나 전형적인 주제
- 속발음, 소리나는 대로, 한자어 문맥 추론,
- 너무나 전형적일 수 밖에 없는 주제 파악 제발!

현대시

-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은 최근의 주제들
- 수업 바탕 공감 능력 잡자

지문 근거 단서 잡고 가는 것이 잘 되는 피지컬 ㅇㅋ
하지만, 주제 중심의 내용 중심의 처리가 핵심임을 다시 확
인 필요.

평가원 의도에 따른
<서정 정보처리 Formula>

- ① 주제 = 정서 = 감정,느낌,생각,사상,태도,자세,반응
↳ 분위기/상황
- ② 미시 정보 구조 = 문장 구조
S, V, O, C, Ad, 반복 강조 수식어 파악
- ③ 거시 정보 구조 = 촉발 - 전환/유지 - 집약
- ④ 문학적 관습에 따른 전형적 정보처리
- ⑤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개념을 적용해야만 정답이 특정되는 확률은 13% 이내이므
로, 주제 집중하여 정보 처리, 특정 후 집중하여 해당 선지
판단하는 습관으로 시간, 정확성, 피로도, 모든 것 이득 볼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고전시가 정보처리 Formula>

- ① 전형적 주제. 나라면 저 시절에, 왜 저렇게 표현??
- ② 소리나는 대로 속발음, 한자어, 문맥 추론
- ③ 현대시 접근법 base

전형적 주제가 95% 이상임. 오개념 논란 같은 바보 같은
일 벌어지지 않도록, 고전 작품 해석법을 익혀, 연계/비연
계 모두에 대한 완성형 학습을 해갈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서사 장르 정보처리 Formula>

- ① 주제 = 서사 줄거리
- ② 사건, 갈등, 장면 파악 ⇐ 분위기
- ③ 인물=성격 + 내면 심리 파악
- ④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 출제

평가원 의도에 따른
<비평 정보처리 Formula>

- ① 비평문 정보처리는 문학 개념 분석 우선
- ② 비평문 근거 > 지문 근거 > 보기 근거
- ③ 필요시 독서 구조 처리
- ④ 작품 해석의 최우선 근거 비평문

비평교육을 중시한 현 출제 교수 세대에 맞게, 강조 출제되고 있는 흐름. 비평문 분석은 지금까지 학습한 문학 개념을 적용하되, 최근 평가원에서 정립한 개념들이 녹아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학습으로 습득한 개념어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번 9평 오답률 1등 문항이 성립됨.(단,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

관련한 해설과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지만, 17이후 기출을 한 번 정리한 원론-수업 필기로 한 번 정리 후 활용할 것.

평가원 의도에 따른
<희곡/시나리오 정보처리 Formula>

- ① 서사장르 접근법 기반
- ② 장면에 대한 상상
- ③ 희곡/시나리오의 특징 파악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하는 장르적 특성상, 장면 상상이 기본이며, 장면 하나 하나가 이면적 의미 및 함축적 의미를 가질 경우 역시 출제 초점.

장면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보밀도가 높은 줄거리, 서술, 지시문등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평가원 의도에 따른
<수필 정보처리 Formula>

- ① 비문학, 서사, 서정 특성 모두
- ② 깨달음-글쓴이 생각이 주제 ⇨ 특히 마지막 부분흐름

깨달음을 표현하는 장르인 만큼 글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집중. 서정, 서사, 독서 특성 모두 존재.

8.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소재특성에 따른 정보처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분류	과학기술	법	경제	논리	철학	예술	기타	유익+ ebs/기출연계			
								원점수	표준점수		
학년도	제재						만점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017 6월	퍼셉트론 - 인공지능경망	유비 논증		음악의 아름다움			141	131 (-10)	124 (-7)	90	83 (-7)
	과학기술 - AI - 머신러닝	논리-논증구조		예술	과학기술						
2017 9월	콘크리트와 건축물의 특성	카르노 이론과 열효율		사단법인 + 주식회사			139	130 (-9)	124 (-6)	90	83 (-7)
	과학기술	예술	과학기술	철학 사상	논리	논증구조					
2017 수능	논리실증.포퍼vs과인총체주의	탄수화물의 소화		공정한보험		고지의무	139	130 (-9)	124 (-6)	92	86 (-6)
	철학 - 지식의분류	논리	과학기술	경제	법						
2018 6월	수기치인	통화 정책		DNS 스푸핑			143	133 (-10)	125 (-8)	89	80 (-9)
	유학-이기론-철학	법	경제	과학기술							
2018 9월	하이퍼 리얼리즘	고전-양자역학 고전비고전논리		집합 의례			134	128 (-6)	123 (-5)	93	88 (-5)
	예술	과학기술	논리		종교-철학						
2018 수능	목적론	오버슈팅	정책수단특성	디지털 통신 시스템, 부호화			134	128 (-6)	123 (-5)	94	89 (-5)
	철학	논리논증	경제	행정학 - 사회과학	과학기술						
2019 6월	서양의학의 동양전래와 수용 (feat. 근대화. 과정. 동양의 가능성)	계약자유원칙과 비례원칙		LFIA 키트			140	132 (-8)	125 (-7)	91	84 (-7)
	철학	법 - 3법 - 법의 기본 원리		과학기술							
2019 9월	CDS 프리미엄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자본주의vs사회주의			129	127 (-2)	123 (-4)	97	92 (-5)
	경제	과학기술		철학	예술						
2019 수능	법률행위	서양과 동양의 우주론 (feat. 근대화. 결과. 동양명량)		가능세계			150	132 (-18)	125 (-7)	84	78 (-6)
	법 - 권리/의무 - 법률행위	철학	과학기술 양념 1문제	논리							
2020 6월	에피쿠로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공진화			144	132 (-12)	125 (-7)	87	80 (-7)
	철학-인간의 시작(결정vs자유)	경제		과학기술+철학양념							
2020 9월	미시사 연구 사료로서 역사	소유와 점유		스마트폰 위치 추정기술			139	130 (-9)	124 (-6)	90	83 (-7)
	사회과학	논증구조	법 - 거래와 소유 개념		과학 기술						
2020 수능	전통적 인식론vs베이지주의	공진화 -이식과 레트로 바이러스		국제법-BIS 비율			140	131 (-9)	125 (-6)	91	85 (-6)
	논리-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경제						
2021 6월	과거제 - 상호텍스트성	손떨림 보정		ICT 다국적 기업			139	132 (-7)	126 (-6)	92	85 (-7)
	사회과학	논증구조	과학기술	법	과학 기술	경제					
2021 9월	현대 예술론, 비평론	행정입법		방역원리			138	129 (-9)	123 (-6)	90	84 (-6)
	예술	철학	논증구조	법	과학 기술	과학기술					
2022 예비	동일론 vs 이원론	음악의 기능과 본질 -상호텍스트성		충전지			139.31	130.46 (-9)	124.31 (-6)	90.77	84.31
	철학	논증구조	예술		과학기술						

1) 위의 표 양식 아이디어 <https://orbi.kr/00032241642> 참고 하여 제작

(가)

위의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점수파트를 보자. 2017부터 시험이 변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당황함에 이어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2017 시험의 표점은 141-139-139 수준으로 형성된다. 물론 이는 전체 표점 평균이 139점 대라는 것에 비교하면 특이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6까지의 기출과 2018기출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다. 즉, 바뀐 시험에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어느정도의 적응과 난이도 이유로 2018학년도 수능 및 2019학년도 9평에서는 소폭-대폭 점수하락이 있었으나, 2019수능에서는 역대급 표점이 형성된다. (말 그대로 역대급, 역대 표점 1등이며 만점자 148명)

그리고 그 흐름은 계속되어, 144-139-140으로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만점자 숫자는 2020학년도 6평에서 65명이 된다. 대치동 만점자 200명 마감반에 단 한명도 없는 숫자.

더 중요한 부분은 만점-1등급 컷의 차이와 1등급-2등급의 차이이다. 백분위 100점과 96점 사이의 표점은 평균적으로 9점 차이, 반면 백분위 96점과 89점은 평균적으로 6점 차이. 즉, 최상위권에서 1점 1점이 매우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등급이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최상위권에서 1점 1점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의 강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능 국어는 완결성 있는 학습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자의적' 학습에 국한되고 있다. 물론, 시중의 대부분의 홍보되는 교재/자료/수업이 수능의 본질, 평가원 시험의 본질 보다는 강사/저자 개인의 논리와 접근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진 신뢰 자본의 손실문제와 비례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나)

이어지는 소재별 특징을 주목하자. 우선 과학기술은 매 시험 출제되는 소재로서, 원리, 수식, 그래프, 도표, 그림, 구조도, 표 등에 대한 자료 해석, 때로는 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 지문들의 흐름을 잡으며, 과학기술 정보만의 특성에 맞는 정보처리 연습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문제는 '논리'인데, 사실 '논리'적 완결성은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유는, 유일하게 100% 참인 명제-논리는 연역법이 유일한데, 연역법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는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사실 연역법은 기존의 인류의 사상과 역사를 단단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보나 창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그 '논리' 역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것은 고전 논리, 전통적 논리에 속한다. 최근의 논리는,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도 있으며, 확률로서 참/거짓에 가까운 정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수학-통계적 방법으로도 논리적 사고의 근거와 방법을 고안해냈다.

즉, 지문에 ABC라는 정보를 찾아, 5번 선지의 ABC내용이 있으니 정답! 과 같은 초등~고1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수능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습 능력과 지능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이다. 생각 좀 해보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롯, 수 많은 박사 학위 논문들은 기존에 없던 지식을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이다. 현존하는 인류에게 미지의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마 어마한 논리적 단서와 근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 big data 시대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전에 존재했던 만큼의 정보량이 새로 생겨난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판단하는 것은 우선 시간 차원에서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정보의 불충분으로 완결성 있는 판단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80분 시간 제한이 있는 time attack을 전제로 하는 수능 시험에서는 주된 측정 대상이 아니다.

(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우선 전체 지문은 글의 구성원리에 따라,

- ① 1단락~2단락 초반부 Topic Setting 확인
- ② 정보의 관계-구조 처리로 정보가치 판단하여 주제 집중
- ③ 위의 과정으로 구조처리는 물론,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여, 의도와 설계에 따른 정보 처리
- ④ 그렇게 출제자가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고 문항/선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수 밖에 없다.

정리하면

- ① 구조 처리
- ② 정보가치 판단
- ③ 주제 중심의 상향식 독서 + 하향식 독서
- ④ 이 과정에서 의도/설계에 따른 사고 흐름 잡기
- ⑤ 사고 흐름을 잡고 문제-선지로 돌입하면 80% 내외의 정보처리
- ⑥ 시간에 따라 100% 특정하기 위한 지문발췌독-정답 특성의 사고 흐름을 잘 기억하기 바람.

(라)

과학기술은 앞서 말했듯이, 원리, 수식, 그래프, 도표, 그림, 구조도, 표 등에 대한 자료 해석, 때로는 작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 ① 정보 완결성 부족
- ② 정보 논리 부족
- ③ 출제 과정에서, 생략/왜곡 발생으로 정보처리 불가능한 정보
- ④ 그러면서도 정보량은 폭발

해결방법은

- ① 처리가능한 정보에 집중
- ② 주제-구조-정보가치-의도-설계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기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 ③ 글쓴 사람의 의도 바탕의 이해 + paraphrase를 통한 상호작용식 독서 모형으로 정보처리가 필수

(마)

법학지문은 출제 목표가

- ① 학생들의 앞으로 실생활 관련
- ② 법체계 확립을 위한 배경 세팅
- ③ 과학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법이 직면한 문제를 초점두고 출제하기 때문에
- ① 실생활-하향식-상황 상상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 ② 헌-민-형 3법 체계를 비롯, 3권분립, 의무-권리 대응쌍, 논리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처리 공식과 지식이 필요하고
- ③ 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④ 기존 수업-필기-원론서 바탕 연습-적용으로 이어간다.
- ⑤ 특히 구조적 특징은, 초반부 도입(예시/문제제기/질문)바탕 원리(법조항 및 원칙)세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P-S 구조 반복

(바)

경제지문은 출제 목표가 학생들의 경제 문맹을 해결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철학 바탕으로,

미시적으로는 기업-금융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원리와 경제위기에 따른 대처에 다루는 흐름이고, 이는 한 지문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출이 여러 해 + ebs 연계를 염두하고 출제된다. 기출된 평가원 지문과, 어휘, ebs는 시험범위다. 제발 '배경지식 없어도 된다'와 같은 근거 없는 통념에 휘둘리지 말자. 시험 조지면 책임은 본인 이 진다. 능지 순, 학습 능력, 제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 ❶ 기출/ebs 시험범위를 전제하므로, 기출 연결 사고/학습이 필수
- ❷ 인과-원리 중심의 이해-처리가 필수이며, 모르는 어휘는 사전 찾아 찾아라 줘. (영어 단어 외우듯이)
- ❸ 제공된 원론서 흐름 잡아라.

(사)

논리에 대해 우리의 통념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예를들면, 1994학년도 수능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신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당시 수능 틀을 만드시던 교수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교수님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신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의 업적과 유산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후학들의 역할이자 의무이고, 선배들의 의지이다.

더군다나, 언어영역에서 국어영역으로의 전환은 시험의 근간이 바뀌는 사건으로서, 2014학년도 개정수능부터 개편된 현재의 수능 국어영역 시험은, 내신 국어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은 물론, 기존의 언어영역과도 매우 다르다. 하지만 아직도, 논리학-언어학-국어국문학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기도, 때때로, 물리학자들까지도 그 영역을 침범한다.

수능 국어영역 시험의 성격은 국어과 교육과정, 즉,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자들의 집단이 알아야자 오메가이다. 가감없이,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사-석사-박사-평가원 임용-전국의 사대/교대로 이어지는 집단 지성과 학자 집단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국어교육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그 변화는 kiss 2.0 riss 2.0과 함께 급변한다. 그 시점이 바로 2010년 전후이며, 그 가장 변화가 큰 10년을 우리는 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학생들 데려다 놓고 시험쳐도 제일 어렵게 느끼는 시험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천년이 지나도, 아니 우주 어디에서도 2차원 평면에서는 항상 참인 피타고라스 정리이지만, 정보처리 능력에 관련된 과목인 국어는, 정보의 성격이 바뀌는, 인류의 성격이 바뀌는 지금 이 시대에 바뀔 수 밖에 없다. 마치 개화기 조선에, 상투 자르지 않고 버티는 척사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들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신채호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에서 보듯, 모든 존재는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그 영향력을 외부에 끼치기도, 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하기도 해야한다. 애초에 인간은 진화의 역사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 도대체 구시대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해 그 문제는 2019 수능에서 터진다. 가능세계. 복수정답 시비. 평가원은 정확히 공문서를 통해 대답한다. ebs 연계지문이며, 배경지식이 전제되어 있으니, 지문에만 근거해서 정오 판별하는 기존의 언어영역 접근법은 도대체 왜 쓰는지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원시-중세 봉건 수준의 사고에 대해 뭐가 틀렸는지 설명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논리란, 근거만 있으면 어떤 주장이라도 가능하고, 사실 출제를 하는 집단은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기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지금의 시민독재 시대에 시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중이 시험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면, 서울대를 들어갈 정도의 머리에, 학사 석사 박사 최소 10년 이상, 평가원 연구를 비롯, 20대 이후 수십년을, 평생을 국어

교육 연구에 생을 다한 그들의 주장을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설득은 될까?

정리하면

'논리' 지문은 평가원 mind set을 기반한다. 따라서, 평가원 mind set, 즉, 평가원이 생각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봐야하며, 역시 원론서 바탕 사고 흐름을 잡아두었으니 자료를 활용바란다.

논리학 지문 처리는

- ❶ 주장+근거
- ❷ 도입/배경/전제 + 주장 + 근거 + 예시 + 예상가능 반론 + 재반박의 기본적인 논증구조 분석이 기본
- ❸ 명료화, 도식화를 바탕으로 정보간의 관계 파악이 핵심

논리라는 것 자체가 정보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아니라 정보간의 구조-관계 파악이 핵심적인 역량이 된다.

(아)

사실 철학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감 난이도 상 중요 순위가 밀린다. 하지만, 신학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사상사는,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른다. 즉, 인간에 대한 학문, 철학이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철학적 정보처리는 역시나 그 지식이 근간에 있어야만 한다. 그 지식의 근간은, 동양-이기론, 서양-형이상학+자연과학 사고 흐름이, 신학-종교학에서 시작하여, 자연과학에 이르는 전반 영역을 관통한다.

문제는 과거의 과학 기술은, 과학기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설(設), 즉, '썰 풀다'의 '썰'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칼로리 이론과 같은, 천동설 같은 주장들. 그 이해가 중요할까, 그 흐름을 통해 지금의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배경과,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중요할까?

모순이 밝혀져 이미 거짓인 과거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데 힘을 빼지 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과거 역사에서 배워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다.

- ❶ 동양 철학 - 유학 - 이기론
- ❷ 서양 철학 - 형이상학 - 자연과학
- ❸ 서양의 근대 철학 ⇨ 동양 전래 ⇨ 수용과 발전 ⇨ 쇠국과 멸망의 사고 흐름을 바탕으로
- ❹ 논증구조
- ❺ 사상사의 전개 및 비교 대조에 초점을 두고 정보처리가 필수적임

(자)

예술 모든 평가원 수능 출제 교수들은 문학 교육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mind set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다. 모든 예술 정보를 내용 + 형식으로 처리하며 이는 비문학은 물론, 화작문, 문학, 비평지문의 근간이 된다.

- ❶ 정보 구조는 항상 내용 vs 형식으로. 난이도가 급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차)

기타

사회과학을 비롯한 지문들인데, 일반적으로는 논증구조 분석을 위한 소재들로, 2020-9월 미시사 연구 자료로서 영화, 2021-6월 과거제에 대한 상호텍스트성 지문이다. 논증구조를 빠르게 잡지 않으면, 자칫 정보량에 질식 할 수 있으니, 논증구조를 철저하게 잡도록 집중한다.

9.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소재특성에 따른 EBS 연계 흐름은 Grand Final I 자료로 대체한다.

비문학 소재 및 문학 소재 출제 관련성 및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한 장 파이널, 그리고 그 이후 제공되는 마지막 짝기 지문에서 제공될 예정.

짝기 지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통계적 근거
- ② 현재 수능 출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집단 지성의 관심
- ③ 올해 출제 교수로 선발되신(추정) 교수님들의 논문
- ④ 수능 출제 흐름, 귀납적, 연역적 접근

10. 평가원 의도와 출제 설계에 따른 독서의 적용 상세는 올해 6-9평에서 가장 이슈가 된 법률 지문을 대표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의 지문 구조를 배운대로 철저하게 분석한다.
다시 한 번 정리 한다.

- ① 주제 흐름
- ② 구조/관계
- ③ 의도/설계
- ④ 정보가치 판단
- ⑤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⑥ 출제자 유도하는 사고 흐름 잡기
- ⑦ 자연스레 보이는 정답 선지 80% 확신
- ⑧ 시간 가능 + 필요시 문제 풀이에서
= 정보 후처리 + 발췌독 + 100% 확신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6평)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31. <보기>는 읽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33.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6평)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해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신역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정의
특허권? 다 아는건데?
주제 도입이라는 생각!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특허권-법률상권리
영업비밀-법으로 보호
공통된 흐름!

결국은? Topic Setting!
과세 문제!
P : 과세 문제
S : 디지털세 도입

디지털 세 정의
그래서??
우려.. 이유가?
법인세? 정의?
그래서??

결국은? Topic Setting!
과세 문제!
C : 법인세 편법
P : 법인세 과세 문제
S : 디지털세 도입!
원리 이해 안 되면
예시 이해

결과, 정보가치업 집중

법률지문 특징
예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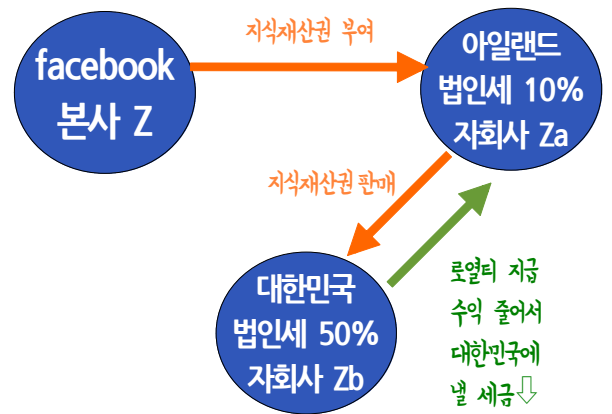
3단락 원리 이해

글로벌 회사 Z사

- ① 자회사 Za를 A국(법인세10%)에 세움
- ② B국(법인세50%)에서 영업 중인 자회사 Zb의 수입을
- ③ 자회사 Za에 로열티로 지출
- ④ 자회사 Zb의 수입은 줄어듦, 수입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는 줄임

3단락 원리 이해 도식화

가정. 아일랜드 법인세10%, 대한민국/미국 법인세 50%



원래대로면,

대한민국에서 10조 수익 → 50% 법인세 → 5조 세금

하지만, ①방법을 쓰면

대한민국에서 10조 수익
 → 9조를 아일랜드 자회사로 로열티 지급
 → 남은 수익 1조 → 법인세 50% → 5천억 세금
 → 세금 90% 절감. 즉 5조 낼 세금을 5천억만 지출

우리나라는 득 될 것 없어서 디지털 세 부과
 반면, 미국은 글로벌 기업이 잘 되어야 결국 국가 이득
 그래서 세수가 줄어도 함부로 디지털 세 부과 못함

31번 문항설계

4단락 원리 이해 표처리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최적수준 : 손해의 합이 최소 = 유인비용+접근비용

아래의 표는, 구조 처리로 간단해짐. 32번 문항설계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일정수준 이상	특허보호↑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특허보호↓	
가장낮은수준 이하	특허보호↑	

[A]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1단락 소주제 및 전체 주제 세팅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1단락 구조+주제

주제와 구조가 절차? 정의를 바탕으로 공통점으로 주제 도입이다? 아니 오답 확률 80% 높고, 여기 좁히고 발췌! 역시 정답! 100%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2단락 구조+주제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3단락 구조+주제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4단락 구조+주제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단락 핵심 원리 이해 P-S 흐름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정답!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만 나라 빼돌리지 말고!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o 과제: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법인세율 ↑ = 이윤비율 ↓ 지문 내용 연결 >
지문 내용과 같은 맥락 = 지문 주장 근거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선지 하나 하나 논리 분석 nono. 그럴 시간 없어! 의도도 아님!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들이 꿈수쳐서 세금을 덜 내냐? 더 내라! = 디지털세 도입

정답 4번! 팍!

제발 쓸데 없는 정보 어그로 nono. 정보가치 높은 것 집중.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유인비용 크게 문제 P = 유인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높여 S
= 특허보호 높여서 특허 개발자 이득줘라 그래야 유인 됨 S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접근비용 크게 문제 P = 접근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서 일반이 접근 쉽게 해 S

최적수준 : 손해의 합이 최소 = 유인비용+접근비용

Table with 3 columns: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Rows include '일정수준 이상',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가장낮은수준 이하'.

주제 집중, 해당되는 선지 보면?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특허 보호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왜 특허보호를 과하게 높다고 판단하냐... 높일수록 좋은 나란데?! 바로 정답 3번 아옴

접근비용이 높다 : 일반인이 특허 때문에 비용지출이 커서 접근이 어렵다 = 손해다

해법은 그 비용을 낮추는 거다 = 그러면 손해, 즉 접근비용이 줄어 아지...

정리해주면..

유인비용 : 지식재산 개발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유인비용 크게 문제 P = 유인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높여 S
 = 특허보호 높여서 특허 개발자 이득줘라 그래야 유인 됨 S

접근비용 : 일반이 지식재산 접근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
 = 접근비용 크게 문제 P = 접근비용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 S
 = 특허보호 낮춰서 일반이 접근 쉽게 해 S

국민소득 구분	국민소득수	추론-문항설계
일정수준 이상	특허보호↑	특허-유인 저해가 손해 = 유인비용 P유인비용↑ 크게 문제 S유인비용↓ 낮추고 S접근비용↑ 높이고 그래서 특허보호↑ 특허개발유인↑
일정수준 이하 ~가장낮은수준이상	특허보호↓	여기는 모두 반대 방향
가장낮은수준 이하	특허보호↑	특허-유인 저해가 손해 = 유인비용 P유인비용↑ 크게 문제 S유인비용↓ 낮추고 S접근비용↑ 높이고 그래서 특허보호↑ 특허개발유인↑

줄글로만 처리하면 멘탈 터짐...
 본인 피지컬에 맞는 방법을 씀시다.
 표그려, 정보관계, 구조 처리하면 깔끔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일단 이것부터 틀리죠?
 S국은, 특허보호를 높일수록 좋은 나란데,
 과하다고 판단 할 리가 없고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당연히 특허 유인이 안 되고
 유인비용 높아지고
 접근비용은 낮아짐
 이것도 인과를 반대로 잡네?

정답 단서를 두 개나 씀
 주제 잡고 털어야지
 선지 하나 하나 정오 판별하면 내년으로 타임 슬립...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굳이~~~~~ 설명하면..
 ICT 주도적 국가 = 지식재산 보호가 이득
 ICT를 주도하고 있으니 당연. 하향식 터는게 빠르고 편해.
 언제 근거 잡으실?? 혼자 수능 80분이 아니라 8시간 치심??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특허 보호 해줘야 한 대니까.
 특허 보호 안 해줘서 생기는 손해가 크겠지.
 주제 원리 잡으면 바로 보임.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점점 높아진다 = 중간단계 국가
 따라서 특허 보호 덜 하는게 이득

점점 더 높아지면? = 일정수준 이상 국가.
 다시 특허 보호 더 하는게 이득.

그러니 낮아졌다가 높아짐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지식재산 보호 높임
 = 특허 유인 높임 = 유인비용(손해) 낮아짐
 = 특허 접근 안 됨 = 접근비용(손해) 높아짐
 정확/편안

3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2단락 주제+구조

결국 세금 덜 내는게 문제.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그 방법은 법인세 낮은 A국 자회사에 이윤 몰고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정답 3번 딱!

법인세 높은 B국 자회사 이윤 줄여서 결국 세금 덜 낸다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수능 국어 문제 풀이는 선지 하나 하나 독립적 정오 판별 아닙니다.

하나의 스토리 텔링과 같은 흐름.
제어에에에에에발.

개화기 조선
쇄국정책-전근대적 사상 고집 그만
-과거의 언어영역 접근법 그만

개화하세요
계몽하세요
4차 산업 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하세요.

(하)

독서 사고 흐름 기억하자.

- ① 1~2단락 세팅된 주제 흐름
- ② 정보간의 구조/관계
- ③ 출제자의 의도/설계
- ④ 정보가치 판단
- ⑤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⑥ 출제자가 유도하는 사고 흐름 잡기
- ⑦ 자연스레 보이는 정답 선지 80% 확신
- ⑧ 시간 가능 + 필요시 문제 풀이에서
= 정보 후처리 + 발췌독 + 100% 확신
- ⑨ 유형별 접근 틀 확립

ex)

독립 정보 군집 문항(4~6개 정보 나열) = 독립 문항 발췌독

원리 이해 = 보기/선지 적용 유형

보기와 지문이 위계 동일 = 비교 대조 표그리기

필요시 도식화

필요시 그리기

필요시 표 그리기

필요시 수식 정리

필요시 인과 관계 정리

하지만 결국에는 주제 + 구조 집중임

이어지는 9평 법률 지문 연습니다.
법률지문의 특징 바탕 구조 분석 적용!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9평)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타내기
- ② ㉡ : 드러내어
- ③ ㉢ : 헤아릴
- ④ ㉣ : 마주하기
- ⑤ ㉣ : 달라진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9평)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 적절하다.

1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2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3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절차

도입부의 의도와 설계를 보시다.
행정규제, 근거는 국회법률.
구조 잡고,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세요

근거? 아니라? 반복되는 말은? +하향식...아!
원칙 : 삼권분립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 예지??
드론? 예시같고..아! 왜-이유!
C1, C2, C3+하향식...아!
역시 1끝-2첫 T.S
법률지문 - 하향식 필수!
역시 1끝-2첫 T.S 3가지!
PS 3권분립 위배. 헌법근거로 해소!

근거
주체
분류
절차

정당화 = 근거
근거 ⇨ 범위 확정 원칙
P : 근거-범위 넘으면 문제겠군!
예측? 아마 근거 ⇨ 범위 ⇨ 예측

그런데
P 1단락+6평 ICT 상황은?
S 범위를 좀 더 넓혀주면 해결!

다시 문제 P 범위가 넓으면? 어구 의미 범위 침범은?
S 효력 없음!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 정보 중 가장 정보가치슈!

분류
절차

법률위임. 즉, 근거법률 없음?
역시, 근거와 범위가 중요!
그러나? 뒷 내용이 잘 안잡힘...
해결은 구조로! 역시, 법 지문!구조 예외!
6평-1단락-2단락 내용 동일인데?
그렇다면
P.C : ICT슈 대응 필요
E.S : 범위 넓혀줌!
이게 또 하나의 주제겠군!

근거
주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결국 근거? 어구의미?
역시 근거 ⇨ 범위가 중요하군!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4단락 가장 정보가치슈!

6평... 기출 연계!
P : ICT 기업 S : 디지털세

P : 드론같이 ICT 변화
C1, C2, C3의 상황 대처?
S : 국회(입법부) < 행정부!

그러면 문제는?
P : 원칙인 삼권분립 위배!
그러면 이어지는 흐름은 그 설명?!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ex) 드론, 전동킥보드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2.
P 3권 분립 문제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

설계와 의도 파악부터

시력문제, 초등학생도 시간만 있어도 푸는 문제 내서 뭐할라고?
세부 내용 일치 문제 아니라 했음...

제발. 백분위 96 근처도 못 감. 스스로 인생 조지지 말자.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정보 후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표 그려야 겠구나! 판단해야지!

딱 봐도 비교-대조- 그런데 동일, 모두, 모두, 모두... 전부다 공통점 찾으라는거네? 그러네? 생각해보니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근거			
범위			
주체			
종류/분류			
절차			

이 구조로 처리가 되었네?

구조 처리 하면 되겠구나! 해야겠나요?

아니면

이걸 하나 하나 발췌독.....

능지가...

학습센스가...

공부머리가...

네... 안 말합니다.

아니 못 말합니다...

하고 싶은 해야지 뭐.

아 잠만... 근데 선지 설계가 5번만 뭔가 다른데? 나머지는 표그려 세 부내용같은데..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응? 주젠데?? 에이 설마... 정답??... 정답!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ex) 드론, 전동킥보드

2. P 3권 분립 문제 -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

수도 없이 수업에서 말했죠?

주제 + 구조 집중하라고

쓸데 없는 정보가치 낮은데 어그로 노노노 제발 좀

여러분 인생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휘둘릴거임?

정보처리도 마찬가지로

Big data 시대, 가짜 정보, 정보가치 낮은 거 어그로 끌리다보면?

네... 개화기 멸망한 조선 된다... 상투 안 찌르고 버티면?

개화 안 하고, 계몽 안 하면?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잠깐만...

‘근거+범위’ 이게 제일 정보량 많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니!

역시 이걸 문제!

그럼 표그리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바로 정답같은데? 2단락에서 ‘근거’만 4번을 말했으니...

거의 60~70% 정답 같은데? 발췌독 하면...정답이네?!

심지어 법 지문 구조 특징 P-S 구조도 있네?

P : 근거(법률) ⇨ 범위. 이 원칙 어겨서 넘기면?

S : 효력 없음 ㉠

주제 구조 잡으라 했습니다.

정보가치 판단, 높은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이해.능지.공부센스.공부머리의 문제가 아님.

그냥 습관의 문제임.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 털어달라고? 왜?

아무리 봐도 1번 정답인데, 수학 문제 풀다가 정답이 34 나와서 6번

선지 골라놓고 나머지 선지 정답 아닌 이유 찾아요?

아... 정답 못 고르는 경우 생길까봐?

애초에 지문 제대로 정보처리 할 생각을 하는게 맞지 않냐?

왜 꼭 80분에 안 될,

혹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익숙한 점수 받으라고 해?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애도 세부내용??? 아니라고



이쯤되면 좀...

딱 봐도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세부내용 털기 전에 주제 줘.

딱 봐, 선지 다시 봐!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찾아 봐.

5번 좀혀지네? 이거 좀히고 발췌독 ㄱ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찾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④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

2) 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ljmg8uurAA> ('넌씨눈'구글검색함... 중요한 거 아님.)

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하면 당연히 동공 지진 오지..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위임명령과 같은지 확인해야 하니 이제 단락으로 가서서 발췌독?

숨은 단어 찾으세요??

수능이 숨은 단어 찾기 문제임?

수능이 시력 문제임?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군침이안도노...



언제 찾을래? 80분 안에?? 되심??? 6평 9평 안 쳤어?????

여기서 시간이 지연된다?
발췌독... 정보량 터지고 시험 던지고 싶어진다?
응. 딱 봐도 정보 후처리 필요하다.
표 그려라.
왜 던지냐... 방법이 많은데!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상위 근거	헌법	행정부직제 사무처리절차	P 위임명령 한계 +	지역 특수성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없음	국회 위임 근거 주체 유형 미지정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비교대조	포괄적 위임 불가			포괄적 위임 가능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X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법률 위임 없이 제정 가능	↓	어구 범위 제한
주체	대통령 총리 부			지방 의회
종류/분류	령 령 령	고시 예규	고시 예규	
절차	입법예고 공포	없음	없음	입법예고 공포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	↑ 국민적용 X		

자 5번 선지 판단해 봐.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응...
발췌독 해도, 표 그려도 안 되냐?
왜일까?
왜겠어요?

출제자 의도 사고 흐름이 아니니까!

배웠잖아요... 매 수업에서...

주제+구조 딱 집중.
주제 : 행정입법
구조 : 비교 대조..아!
공통점이 있긴 해?
제일 중요한 '근거'를 봅시다.

그러네!
국회 위임 법률에 근거해서 2단락 / 4단락이 만들어지는 반면 3단락은 국회 위임 법률 근거가 없거나, 국회 위임 법률이 뭔가 부족할 때 해결 방법으로 쓰는 거네! 그럼? 당연히 **차이점. 다르네!**

아... 구조 뻑세계 잡을 걸...

주제 뻑세계 집중할 걸...

즉,
① 지문 정보 처리할 때
② 문제 들어와서 발췌독 할 때
③ 정보 후 처리 표 그릴 때
3번이나 기회가 있었어.
주제 구조 집중하라는!
이러면 혼 나가지 뭐..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3단락 주제. 행정규칙 근거 법률 없음 맞음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단락 세부내용. 하지만 역시 구조 잡으면,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근거 법률 필요 없음. 잉? 이것도 '근거'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탈리네?!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절차 없음
최소한 구조 뻑세계 잡았음 역시 보이겠네?
정보가 분산이 안 되네?

① ⇨ ② ⇨ ③ 사고 흐름이 있네!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위임 근거 법률. 주제...
역시 어떤 근거로 행정 규칙등의 행정 입법이 제정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구나!

그러면?
맞네, 정리하면
국민에 적용 안 되는 행정부 내부 관련 입법이니
행정부 입법에 근거 법률 없어도 되고, 절차 없어도 됨!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C 첨단기술 관련성
⇨ E.P 위임명령 대응 어려움
⇨ S 행정규칙이 행정규제 입법으로 해결!
+ 절차 없음! + 주체만 지정됨 + 유형 지정 없음
(해결방법이니 좀 더 근거/범위/절차 등을 자유롭게 하나보군!)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③, ④ 선지는 좀 더 세부내용이지만, 주제 구조와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을 잡아 어떤 관통의 원리 이해 후 접근하면 좀 더 쉬운 판단이 되는군!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그래... 차이점이 명백한데? 같다??

역시, 주제로 보나, 구조로 보나!

정답확률 매우 높고!

좁혔으니 정답 특정도 쉽고 빠르고!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아마도 근거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아마도 위임명령)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따르면 (범위, 어구는 딱 맞게!)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세부사항인데? 아 이건 같은 국회 제정 법률이군!)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이건 조례!)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표를 그리는 과정에서, 즉 앞선 문항 풀이과정에서 처리된 정보 기반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가능하고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바로 답 나오네요. 구조/정보가치 높은내용 집중하니!

법률 제3조 : 일반적 내용이고,

법률 제16조 : 세부사항이니, 1번 선지 맞아 보이고!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주제+구조!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위임명령

이것도 맞나??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행정 규칙 제외 모두 절차가 있는데! 틀렸군!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정답이네?!그러면??

	2단락 위임명령	4단락 조례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어구 범위 제한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2단락 위임명령	4단락 조례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어구 범위 제한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	?

알 수 없는데? 정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실?? 아니야.

세부 내용.

처리 불가 정보

완결성 없는 정보 이그로 나

물론, 추론하면,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의회이니

해당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준수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그런 추론과 그 추론을 위한 충분한 정보 처리 후 필요한 정보만 끌어와서 판단? 실전에서? 안 된다니까... 네. 되면 하세요... 하시던 대로... 진즉 1등급 백분위 100 나왔지...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3조의 구체내용은 16조에서 확인!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위임명령 5조의 근거는 법률 3조!

역시! 좁히니까 보이는 세부 내용!

아시겠어요?

세부 내용도 결국에는

주제-구조-정보가치 좁히는 것에서 시작!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끈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6월)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 간밤. 무엇을 간구. [A] 울었음
이면적 정보
 뭔가 찾는 부정적 상황같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전환
표면적 정보
 ↓ 아침. 시. 굽이굽이. 은은히
이면적 정보
 아침이 되면서 좋아졌나?
문학적 관습=처리근거
 시인에게 시 = 긍정!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유지
 꽃... 긍정 상황이고
 숨으라? 이걸 잘 모르겠는데..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유지
 환히. 트이는. 떠오르는. 꿈
 모두 긍정!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유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니까
 가락을 더듬으니까
 역시 모두 긍정!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유지
 즐거이 노래 부르니까!
 근데 왜 사양하라고 하지?
 이것도..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집약-주제
 수미상관이네? 그런데
 노래로 바뀌었으니 [B]
 슬픔 = 부정
 노래 = 긍정 상황 전환!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군!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끝이끝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아마도
 나무 = 나 = 시골에서 온 존재
 = 솔직함
 그랬더니 도시 적응이 힘든데?
 도시 = 벌레들 날 땀
 살기 힘들다 = 신경증, 불면증
 =치욕같구나...
주제
 나무와 나의 동일시
 ⇒ 도시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딱 3번 선지 정답확률87%
 맞네!
 (가) 부정→긍정 전환있고
 (나) 주제는 당연히 있고
 좁히고 발췌독... 명령, 단정. 있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등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
 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나)는 단정
 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
 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 4번만 out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운개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
 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역시 전환!)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
 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부정→긍정!)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
 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부정→긍정!)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
 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잠시만... 숨으라... 사양하라... 지향점? 이상한데?! 전환도 없고!)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
 다.(그치! 기원 ⇒ 실현! 전환. 역시 정답은 그럼 4번이군!)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주제 집중. 바로 5번 정답!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
 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
 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
 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
 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
 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
 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
 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역시 주제!)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역시 주제!)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
 을 드러내고 있군.(역시 주제!)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
 을 보여 주고 있군.(역시 주제!)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
 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나무를 왜 비판해! 도시가 문제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고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이면적 정보
 성찰 ⇨ 자기 비판이군
 *매우전형적 주제

유지
표면적 정보
 벗. 마음에 안 든다
이면적 정보
 부정적 인식

유지
표면적 정보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유지
 여기도 전부 마음에 안 드네!

집약
 수미 상관 하면서
 반짝. 자유
 vs
 죽어있는 나의 영
 자아 성찰/비판이군!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을 겨울 몫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축발
 상상해봅시다. 저 장면!
표면적 정보
 붙들린 배 = 혼련 = 얼었어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유지-표면적 정보
 왜 우리는 바웃고 시시덕거 대고
 웃음을 참지 못해?
 불박힌 말?
이면적 정보
 아마 부자유 비판?

집약
 부자유+팡팡팡 몫시 춥다
이면적 정보 바웃음 = 비판
 얼고, 변화 가능성 안보임 !!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성찰/자신이 마음에 안 들 = 주제
 5번 말고 있음? + 수미상관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적 관습!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구조:축발!)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정답!. 문학적 관습. 스스로 부자유? 아마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자유겠지! 혼련이 어떻게 내부요인임?)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비판!)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부자유 비판! 2번 선지와 대립.)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역시 주제의식!)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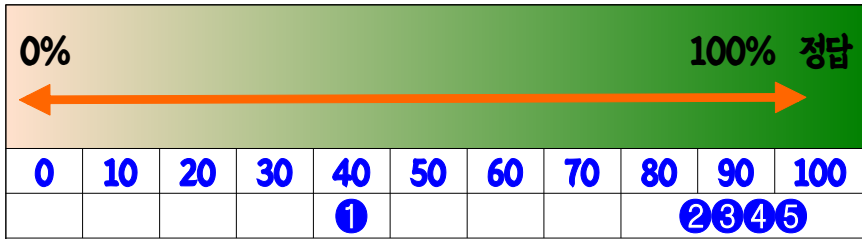
주제+구조 특히 주제 집중
 +문학 설계에 따라 보기연결!
 +베이즈주의 정답확률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 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제+보기)

잠시만요.. 정답이 이러면 없나?
 아 역시!
 상황 ⇨ 반응(정서)
 (가)나의 영이 죽어있는 것 아니냐 = 비판/성찰에서 끝나는 걸까?
 = 선지처럼 좌절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 뭐하러 비판 / 성찰해? 어차피 해법이 없으면???

아! 역시 문학적 관습.
 비판/성찰을 한다는 것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다만, 해법을 찾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법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지



- 100% : 성찰
- 80% : 성찰의 전제(1)를 생각하자
= 고민만 하고 끝날까? or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
- 70% : 성찰의 전제(2)를 생각하자
= 해결 방법이 없는데 성찰할까? or 해결 방법이 있는데 성찰할까?
- 100% : 문학적 관습 + 평가원 출제 의도 + 교육 목표 생각하자
= 체념을 가르칠까? or P-C-S 해법을 찾아가게 할까?
- 40% : 물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부정적 현실 인식과 성찰 차원에서만 머무른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문학적 관습 - 평가원 mind set에 비추어 보면 옳을 확률은?

그렇다면 아마도? 정답은?!
①

20수능 베이지주의 논리처럼,
 14기출 칸트 이성+감정 ⇨ 미감적 판단력 : 공통감 = 공동체의 감각
 ebs 기출 : 의미 이론 1.주관 ⇨ 2.객관 ⇨ 3.사회/공동체

위와 같은 평가원 문학적 사고 틀 잡으시길 바라고,
 6-9의 소설 파트는 큰 이슈가 없어서, 22예비평가로 다루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31~33 202~203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 우회적, 서형, 조상규, 유연의 매부인 최수인, 서족인 홍명이 앉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채응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구 부사 박응천이 좌중의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사는 좌중의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채응규에게 캐물었다.

[A]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네가 한번 말해 보아라.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지.”

채응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즉시 뜰로 끌어 내려 삼목을 채워 묶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 있겠느냐? 지금 네가 사실을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자는 일이 궁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채응규라고 했다가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잠시 후에 채응규의 첩 춘수라는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병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옥에 가두지 마시고 사처에 억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관노 박석의 집에 머물게 했다.

5일 뒤 채응규와 춘수가 밤을 틈타서 달아났다.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채응규는 이미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실의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사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졸을 매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연의 아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채응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백 씨가 유연을 이웃 마을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가두었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 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또 유연의 옥사

[B]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 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허했다.

이때 유연이 서울의 옥에 잡혀오게 되자 이지과 심용이 마주 앉아 모의를 하며 은밀히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작정인가?”

김백천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지과 심용이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걸세.”

“그렇다면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이지과 심용이 이런 말로 중용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매부인 이지과 형수 백 씨의 계략에 의해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된 후,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는다. 유연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범부에 호소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인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 한 통을 삼가 올립니다.”

유유가 나와 말했다.

“저는 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유유는 부친의 이력을 자세히 말했고, 친척과 하인은 물론 평소에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시어 저를 꾸짖고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평안도로 들어가 소식을 끊고 지냈고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항복, 「유연전」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응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횡설수설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 ② 춘수는 채응규를 사처에 머물게 해 달라고 부사에게 요청하고, 채응규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여 채응규는 달아나지만 자신은 잡힌다.
- ③ 감사는 백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게 했다.
- ④ 이지와 심융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김백천에게 자신들과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고 있다.
- ⑤ 유유는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부사는 채응규가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 ②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고 있다.
- ③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이 보고되기 전,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 ④ [B]에서 간관은 [A]에서 부사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A]에서 부사는 대질 심문을 통해 채응규에게 죄가 있음을, [B]에서 간관은 옥사 처리의 부당함을 근거로 부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전(傳) 작품이다.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1차 송사)에서 채응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만, 이후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벌어진 국문(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승리하게 된다.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 ① 1차 송사 진행 중, 채응규가 도망을 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군.
- ②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 ③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겠군.
- ⑤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군.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31~33 202~203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관아에 이르니 마을 사람 우희적, 서형, 조상규, 유연의 매부인 최수인 서죽의 홍명이 앉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최응규는

“저는 유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구 부사 박응천이 좌중의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유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사는 좌중의 사람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최응규에게 캐물었다.

[A]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네가 한번 말해 보아라.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지.”

최응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즉시 뜰로 끌어 내려 삼목을 채워 묶고 말했다.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 유유라면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 있겠느냐? 지금 네가 사실을 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이나, 그렇지 않다면 관아의 형벌로 다스리겠다.”

그자는 일이 궁색해지자 자신이 유유라고 했다가 최응규라고 했다가 두서없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짐짓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삼시 후에 최응규의 첩 춘수가 자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병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옥에 가두지 마시고 사처에 억류해 두시길 바라옵니.”

부사는 관노 박석의 집에 머물게 했다.

5일 뒤 최응규와 춘수가 밤을 틈타서 달아났다.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최응규는 이미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실의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자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의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친자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려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졸을 매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유의 아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최응규라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백 씨가 유연을 이웃 마을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갔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 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또 유연의 옥사

[B]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 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허했다.

이때 유연이 서울의 옥에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용이 마주 앉아 모의를 하며 은밀히 김백천에게 물었다.

“유연이 오면 우리도 국문을 당할 텐데 자네는 뭐라고 말할 작정인가?”

김백천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와 심용이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유연과 함께 목이 잘릴 걸세.”

“그렇다면 뭐라 말해야겠습니까?”

이지와 심용이 이런 말로 중용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아무 근심 없이 지나갈 걸세.”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매부인 이지와 형수 백 씨의 계략에 의해 형 유유를 죽였다는 모함을 받고 하옥된 후,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는다. 유연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매일 하늘에 기도하며 지내던 중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법부에 호소했다.

“억울하게 죽은 유연은 달성령 이지의 재산 다툼 때문에 잘못된 처벌을 받아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인 저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서 한 통을 삼가 올립니다.”

유유가 나와 말했다.

“저는 친유용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유유는 부친의 이력을 자세히 말했고, 친척과 하인은 물론 평소에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척척 대답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유에게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유유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내에게 소박을 놓았다 여기서 저를 꾸짖고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평안도로 들어가 소식을 끊고 지냈고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항복, 「유연전」

우선 인물이 20명 넘음... 이럴 때?

주인공 중심 서사잡으라 했음

특히, 구조적 특징이 있으면 잡으라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핵심은

유유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래서 정리하면.

#1. 채응규가 유유 행세 ⇨ 결국 탄로남 ⇨ 채응규 첩 춘수가 호소

#2. 관노 집에 잡아 두었던 채응규 도망감

여전히 유유의 행적은?
그러나?

#3. 유유의 아내 백씨 생각 ⇨ 유유 동생 유연이가 죽었어! 원통해!

일단, 다 잡아 놓고 문초 해야하니,
감사는 부사에게 싹 잡아들이라고 명령

그러면? VS

#4. 유연의 아내 이씨 생각 ⇨ 억울한 누명입니다!

감사는 그것도 맞다고 하지만 백씨가 호소한 이유가 있을테니..
일단 수사부터!

그런데? 조정으로 가버렸네?

#5. 간관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유유 : 행방불명, 행색이 달라도 유유는 유유지!
유연 : 유연이가 재산을 뺏으려고 유유 죽였어요!
부사 : 수사를 잘못했어!

따라서,

- C1. 수사 잘못
- C2. 수사 지연
- C3. 경상도 민심 들끓어!
- E1. 부사 파직
- E2. 유연이 감빵!
- 임금 승인

#6. 갑자기... 모의?

아마 뒤가 구린놈들 끼리 모여서 뭔가 하겠지?

#7. 줄거리. 요약제시. 정보가치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구나! 아마도
유유가 행방불명
유유 아내 백씨는 유연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연이는 억울하게 죽고
유연이 아내 이씨는 또 억울함 호소
그런데 유유가 나타나?
이제 사건 전모 밝혀지겠군!

#8. 유유 등장. 모든 사건 밝힘

유유가 아버지 때문에 잠수...

이렇게 잡힌 주제-줄거리 바탕 접근하면?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응규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황실수설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1
- ② 춘수는 채응규를 사처에 머물게 해 달라고 부사에게 요청하고, 채응규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여 채응규는 달아나지만 자신은 잡힌다. #1~2
- ③ 감사는 백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대구 부사로 하여금 유연을 잡아들이게 했다. #3vs4. 이상한다? 정답!
- ④ 이지와 심옹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김백천에게 자신들과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고 있다. #6
- ⑤ 유유는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냈다. #8

킬러 유형 하나 잡습니다!

19수능 오발단. 장면vs장면 으로 갈등양상 구조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vs #4에서
#5 부사는 중립
하지만
#5는 #3 선택 #4배적

핵심은 #3 vs #4

유유의 아내 백씨 vs 유연의 아내 이씨
모함-모략 vs 진실
역시 가장 정보가치 높으니.. 정답!
그 흐름이?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부사는 채응규가 친척이다. 마을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1. 내면심리. 의도 정확
- ②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옥사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부사를 파직하라고 간언하고 있다. #5. 판결은 C-E구조!
- ③ [B]에서 간관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던 감사의 판결 내용이 보고 되기 전, 유연에게 죄가 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5. 장면
- ④ [B]에서 간관은 [A]에서 부사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5. 확기 불가... 그리고 이미 채응규 이야기는 #5에서 주제가 아닌데? #3vs#4인데?
- ⑤ [A]에서 부사는 대질 심문을 통해 채응규에게 죄가 있음을, [B]에서 간관은 옥사 처리의 부당함을 근거로 부사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판결은 C-E구조. 따라서 [A]와 [B]의 공통구조!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전(傳) 작품이다.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1차 송사)에서 채응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만, 이후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친탁한 이지가 승리하게 된다.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조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 ① 1차 송사 진행 중, 채응규가 도망을 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군. 구조된 상관? C:백씨 고소 ⇨ E:2차 송사. 일단의심!
- ②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1번 선지 연결 사고 흐름 - 평가원 의도 사고 흐름
- ③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구조 C:권력결탁 ⇨ E:승소
- ④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겠군. 구조 C:유유 나타남 ⇨ E:3차송사 진실 밝혀짐
- ⑤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군. 구조 C:음모+살인죄 누명 ⇨ E:2차송사 C:유유 등장. 유연아내 이씨 억울 ⇨ E:3차송사 진실밝혀짐. 권력 탐욕? 정답 5번!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예비)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겔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

[A] 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B]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 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체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체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예비)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C**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E**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E**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러할라네.” **C**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려.”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나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C** 그리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C**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 **A** 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C**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C** 현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C** **B** 이제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지한 것이었다. 너무 **C** 근거가 박약하고 **C** 마음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C**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C**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C**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C** 아직도 극히 유지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C** 어린 **C** 아이다. 마침 **C**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C**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C**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1. 줄거리

- 형식 - 영채와 먼저 약혼. 죽은 줄 알았고
- 형식 - 그래서 선형과 약혼 + 미국 유학 그런데 영채가 두드등장?

#2. 표면: 외적 갈등 - 작가의도/이면: 내적갈등

#3. 장면[A] 표면: 내적갈등 < 감정/감성 근거

미국 유학 - 선형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표면은 우선과 대답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이 내적갈등 [A]로 이어짐

(중략)

#4. 장면[B]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갈등 < 이성적 근거

#5. 성찰: 사랑-개인 차원 슬프다 보다는 미성숙하구나!

#6. 성찰: 사랑-사회 차원

P 조선 **C** 어른 없는 사회 - S 내가 어른 되어서 계몽해야지(가르쳐야지)
P 사실은 내가 **C** 어린아이 - C 조선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즉, 사회도/공동체도 미성숙, 나도 미성숙
S 당연히 해법은 개인적 계몽,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계몽이겠지
(문학적 관습 근거, 평가원 mind set)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갑자기 자기주도? 자기희생?

주제 잡자...

[A]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 감성/감정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정답! 맞췄어? 역시 주제-구조-핵심 갈등-서사 잡으라 했음!

[A] 선행이나 영채나 = 사랑의 대상

[B] 선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한 내적 갈등과 성찰 : 이성근거 근거!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2번 선지 이어지는 사고 흐름 보입니까!

이성과 감성 뒤집었군! 다시 한 번 2번 선지!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뭔가 핀트가... 현재와 미래? 그런 상황이 아닌데?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둘 다 내적 갈등인데 확신이 어디 있어!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발 이것도 주제 좁히고, 필요시 좁히고 발췌독!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인과 구조 정확히 잡히구요!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행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 이게 만류하는 친구 입장이라면 역시 정확하고!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형식이 입장이면 구조/내용 맞추요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행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잠깐 stop!

#3. 장면[A] 표면 : 내적갈등 < 감성/감정 근거

미국 유학 - 선행 vs 미국 유학 안가 - 영채

선행이랑 가는게 미국유학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역시 핵심사건. 갈등. 정보가치 높은 것에 집중! 정답!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냐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에 setting된 주제의식

문학적 관습

성찰 < 개인적 - 사랑 - 미성숙

성찰 < 사회적 - 미성숙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윤리, 권력... 당연히 아니구요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문학적 관습으로, 조선-개화기-계몽사상-일제강점으로 이어지면 3/4번선지 고려도 가능하지만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이것이 가장 주제에 가깝죠! 정답 스펙트럼!

어린이 : 미성숙 = 이상 관념 수준

어른 : 성숙 = 이상 체득

정답!

미스터 션샤인 출제 가능 높다고 한 근거!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T1. 연애=개인 주체인식, 자아인식)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T2. 연애=사랑=결혼 제도 변혁)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 (T2. 제도변혁이니깐!)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 (T3. 계몽!)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 (T4. 진실발견)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 (T4. 성찰-결핍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의식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T1. 근대적 자아 개념의 확립과

T2. 사회 제도 변혁과

T3. 계몽가

T4. 진실발견-성찰-결핍발견

결국 사회도/개인도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부연 설명 하면,
 조선시대 여성은 이슬람 회잡 같은 것 쓰고 얼굴 못 내놓고
 노비들은 이름도 없고
 주체적인 사랑? 당연히 없고
 결혼? 사랑이 아닌 가문의 결정이고

즉, 개인의 주체적 삶의 결정 불가능
 그런데? 개화기? 사랑? 자신의 선택!
 역시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T2. 근대적 제도로의 변혁으로 이어지며

T3. 미개한 그 시절 개화 즉, 계몽으로 이어지고

T4.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진실의 발견 = 성찰 = 결핍, 즉 부족함의 발견 = 그래야 성장하겠지.

평가원의 따스한 한 마디 아시겠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T1. 감정/이성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 근대적 자아
 주제 : 개인적 차원 보이고! => 이어지는 사고 흐름!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이어지는 주제 흐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제도 변혁, 그리고 계몽성까지!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T1에서 T2~T3~T4이어지는 주제 흐름!
 그리고 평가원의 사고 흐름 보이시나요?
 역시! 평가원.. ㅠ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뒤편? 네. 역시 정답. 주제 집중하면 말도 안 되는 진술 보입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① 화작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① 정규 화작 수업
- ② 5월 특강보충영상 꼭 신청해서
수업필기/원론서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② 문법/언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① 정규 언매 수업
- ② 5월 특강보충영상 꼭 신청해서
수업필기/원론서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개념부족등의 문제는 개별 밀착톡으로 문의-답변-피드백

③ 문학 전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① 문학원론서 정독을 바탕으로 복습, ebs 출제 예상 지문에 적용.
- ② 필요시 정규 커리 보충영상 복습 요청하셔서
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 주시고

④ 독서 전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 ① 1주차 부터의 수업 필기 정독/원론서 정독 바탕
- ② ebs 적용
- ③ 실전 연습
등으로 복습/정리 마무리 해주십시오

⑤ 실전 연습이 부족을 느끼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면

- ① 우선 한 장 파이널 회독. 문제 풀 때 마다 정독 후 의식 풀이
- ② 실전 관리를 위한 의식 및 시험 후 생각 정리 필수입니다.
- ③ 결국 평가원이 의도하는 사고 흐름 잡으면 된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 ④ 이 자료만으로도 당신은 19수능 만점자 148명, 20-6월 만점자 65명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수험생.

당신은,
 1등 수업
 1등 자료
 1등 교재
 1등 관리를 위해
 1등으로 노력하는
 수능 국어 압도적 1등 강사와 함께
 올해 1등급 당연히 성취할 것입니다.

믿어 주신, 따라와 주신 고객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고객님들도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고,
 6평 이후 또 문제점 보완해 결과 만들어봅시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발 더 내딛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토가 됩니다.

나아가십시오.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실전 학습 277~288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어떤 상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n개의 상품이 있으면, n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만큼의 상대 가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상품의 수가 많아지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간은 화폐를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가격의 척도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화폐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대부터 화폐로 사용된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지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페르시아의 금이 유입되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기도 했다. 이는 상품들의 가격이 변한 것인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6세기의 ㉠보덴은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와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다. 이후 18세기에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당시 주류를 이루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중상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용 귀금속을 부의 기본으로 보고 이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폈다. 특히 국가의 부는 무역 흑자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무역 흑자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전학파는 무역 흑자로 인해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 등에서 무역 흑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전학파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다. 교환방정식은 경제 체제 내에 어느 정도의 통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통화는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목 GDP*는 통화량(M)과 일정 기간 통화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값인 통화 유통 속도(V)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명목 GDP는 물가 수준(P)과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거래량(T)의 곱이기 때문에 $MV=PT$ 로 표현된다. 보통 T는 실질 국민 소득(Y)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도 한다. 피셔는 V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체로 안정적이며, T는 기술력이나 고용과 같은 생산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화량은 물가 수준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방정식은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마셜은 통화의 수요를 중심으로 현금잔고 방정식을 고안했다.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M)은 명목 국민 소득, 즉 물가 수준(P)과 실질 국민 소득(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셜은 여기에 경제 주체들이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 보유 비율(k)이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M=kPY$ 로 나타내었다. 이를 피셔의 방정식 $MV=PY$ 에 대입해 보면 k는 통화 유통 속도(V)의 역수가 된다. 그러므로 k 값이 크다는 것은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 잔고 방정식은 교환 방정식과 달리 화폐 보유 동기에도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된다고 본 점은 같다.

피셔와 마셜의 방정식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고안되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기준 금리*이다.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채권 보유가 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 채권을 현금화하는 양이 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준 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과 그를 통한 물가와 경기의 조절은 실제 경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마셜의 영향을 받은 ㉤케인스는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하며, 통화 유통 속도와 금리 정책에 대한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했다. 그는 화폐 보유 동기에는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 외에도 투기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투기는 불로 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가치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기준 금리를 낮추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스는 기준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머지않아 기준 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은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와 경기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기의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보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목 GDP: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당해 연도 시장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GDP.

*기준 금리: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 금리로, 한 나라의 금리 체계의 중심이 되는 금리.

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금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 ② 화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절대 가격으로 고정되었다.
- ③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고 집을 팔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투기이다.
- ④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 ⑤ 국내 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무역 적자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 ㉢과 달리 무역 흑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 ② ㉠, ㉡, ㉢은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한다고 보았다.
- ③ ㉡과 ㉢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과 ㉡은 ㉡과 달리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도 주목했다.
- ⑤ ㉡은 ㉡과 달리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2019년 A국의 명목 GDP는 80조 달러였고, 2019년 12월 31일의 통화량은 20조 달러였다. 같은 기간 B국의 명목 GDP는 40조 달러였고, 같은 시점의 통화량은 20조 달러였다. 단, A국과 B국의 환율과 물가 수준은 같다.

- ① A국의 통화는 2019년 평균 4회 사용되었다.
- ② 2019년의 A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B국의 2배이다.
- ③ 2019년의 B국 경제 주체들의 통화 보유 비율은 A국보다 크다.
- ④ 2019년의 A국의 명목 GDP는 B국의 2배이지만 실질 국민소득은 4배이다.
- ⑤ 2020년에 A국과 B국 모두 통화량을 늘릴 경우 양국 모두 물가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갑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0%대까지 내려갔다.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기업들은 현금의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과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갑국의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려해야 하겠군.
- ②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은 통화량을 늘려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 때문이겠군.
- ④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는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이겠군.
- 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겠군.

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 ②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 ③ 감기가 오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
- ④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 ⑤ 봄이 남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실전 학습 1회 272~276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법은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경우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시효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발주한 공사를 을이 완료한 상황에서 을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을이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효 제도에 따라 을은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여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을의 관점에서 ㉠시효 제도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은 그러한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지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와 법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거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은 위협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착화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 행사를 조력할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증거 보존의 곤란'도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들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진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현재의 사실 관계 외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거 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효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시효 제도로 '취득 시효(取得時效)'와 '소멸 시효(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 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민법은 물권*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점유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취득 시효 규정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인 '취득 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면 취득 시효 완성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시효 완성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시효 제도인 '소멸 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에 의해 생기는 이익인 '시효 이익'을 받는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지배적 견해는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전자의 경우,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관계: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법질서: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시를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법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통념의 한계를 언급한 후 통념에 대해 논박하고 있다.

2.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설명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	
		옳다	그르다
①	우리 민법은 소송의 효율성이 저하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소멸 시효는 사법상 권리의 소멸, 취득 시효는 사법상 권리의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	○	
③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	
④	‘증거 보전의 곤란’에 따르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의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시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시효 제도’에 대해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정한 권리관계와 사실 관계 모두를 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②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사실 관계를 무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④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제 사실 관계를 바꾸어 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⑤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a. ㉠은 시효 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이 고려되려면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b. ㉡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소멸 시효 완성이 될 수 없다고 본다.

c. ㉠과 달리 ㉠은 판례와 지배적 견해가 취하는 입장으로,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된다고 본다.

d. ㉠과 ㉡은 모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a, c
- ② a, d
- ③ b, c
- ④ a, b, d
- ⑤ b, c, d

5.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다음 사례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시효 제도가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말해 볼까요?

A는 1993년부터 ○○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는 ○○ 토지가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땀땀하게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길렀고, 취득 시효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한편 B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기르는 사실을 A가 알고 있었음에도 A는 ○○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 ① B가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면 B는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군요.
- ②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제삼자인 C에게 ○○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B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겠군요.
- ③ A는 ○○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을 B에게 행사할 수 있겠군요.
- ④ A가 20년간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진정한 권리자인 양 ○○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⑤ B가 법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 규정을 고려하면 ○○ 토지의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군요.

6. <보기>를 참고하여 ㉠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또 의미 관계에 따라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대등 합성어’,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종속 합성어’,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 ①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 ②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 ③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융합 합성어이다.
- ④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다.
- ⑤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36~19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50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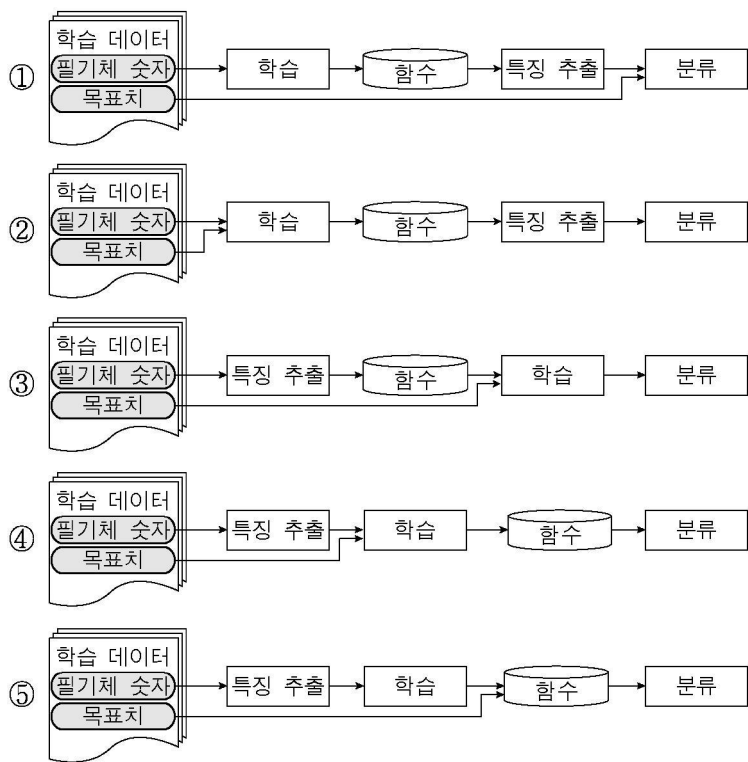
36.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37.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⑤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38.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3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취합(聚合)하여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6~19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 입력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6. 밑글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의 기본 단위이다.
- ② ㉢는 ㉡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③ ㉣가 변하면 ㉤도 따라서 변한다.
- ④ ㉤는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는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 ②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 ③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 ④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 ⑤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 ②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 ③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 ④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이다'로,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해야 되겠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W_b=0.5$,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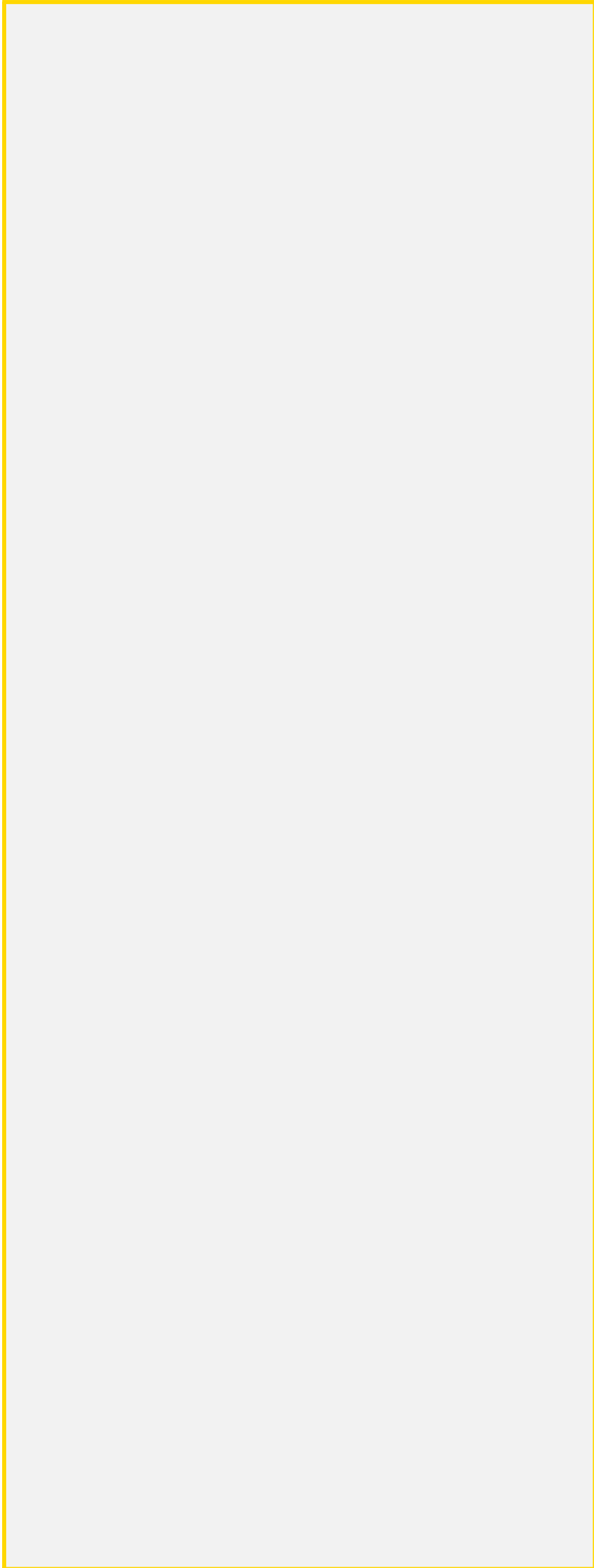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I_b=0$,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 W_b ,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뒷 면에 필기. 내손내공

내손내공

문제 풀이 직후 그리는 '구조도'



평가원 mind set ⇨ BAET 수업 ⇨ 내 손 ⇨ 내 머리

수업 필기

내손내공 P.C.S

나의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책 모색하기.

2022학년도 수특 독서 과학·기술 03 199~202p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며, 충돌 없이 교통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㉔ 지칭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크게 인식, 판단, 제어의 3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인식 기술,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수행할 행동이 결정되면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는 제어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기술 중 특히 인식 기술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판단과 제어 기술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기술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인식 기술에는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다와 같이 주변을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가 사용된다. 이러한 센서들은 각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의 특성, 탐지 거리, 사용 빈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탑재 위치와 수량 등이 결정되는데,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통합되어 자율 주행에 이용된다. 카메라는 다른 센서로는 수집할 수 없는 색상이나 무늬와 같은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데 ㉕ 탁월하지만,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커 정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 차량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소 60m에서 최대 250m 사이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지만,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초음파 센서는 주로 차량 전후방에 장착되어, 주차 시 차량 주변의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초음파 센서는 단순히 장애물 유무 정도만을 탐지하는 센서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지 거리가 15m 이내이고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센서들로, 안전한 자율 주행에 필요한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주행 자동차에는 이러한 센서들과 함께 라이다가 사용된다. 라이다는 높은 출력을 지닌 레이저를 물체에 방사하고, 이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3차원 거리 정보를 ㉖ 획득하는 장치로, 약 150m 이내에 있는 물체의 위치, 거리, 형태와 같은 3차원 정보를 1~2cm 이내의 오차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로는 ㉗ 3D 레이저 스캐너와 ㉘ 3D 플래시 라이다가 있다. 3D 레이저 스캐너는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와 수신부가 묶여 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축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3D 레이저 스캐너는 특정 방향의 수평 시야각*에 대해 레이저의 입출력이 가능하며, 대상에 대한 레이저 방사와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축을 회전시킴으로써 다른 수평 시야각의 거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조합해 전체 시야각, 즉 360도의 3차원 영상을 구성한다. 3D 레이저 스캐너는 넓은 시야각 확보를 위해 레이저 출력 및 수신 소자의 수를 ㉙ 증가시키고, 회전축이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이저 수신부의 광 검출기에 사용되는 갈륨 화합물이 고가이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회전체가 흔들려 레이저 입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로 인해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D 플래시 라이다는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레이저 빔을, 광 확산기를 통과시켜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방사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광 검출기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얻는다. 3D 플래시 라이다는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실시간으로 검출해, 높은 정밀도의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해야 하므로 레이저 수신부가 여러 층으로 ㉚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도 복잡하다. 특히 3D 플래시 라이다는 수평 시야각이 360도로,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동시에 수신해야 하므로 값비싼 갈륨 화합물로 제작된 광 검출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작 공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3D 플래시 라이다는 3D 레이저

스캐너가 수행하는 회전과 순차적인 레이저 스캐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정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관련 장치를 소형화하는 데 유리하다.

3D 플래시 라이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율 주행 자동차에는 주로 3D 레이저 스캐너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3D 레이저 스캐너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들은 굳이 360도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탐지하는 방식보다는 제한된 수평 시야각만을 탐색할 수 있는 ㉛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자율 주행 자동차가 늘어나 수많은 차량에서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 각 차량에서 출력된 레이저가 간섭하는 문제, 다양한 기후 및 도로 환경에서 레이저를 통한 3D 거리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레이저가 보행자의 시력을 손상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야각: 장치가 탐지할 수 있는 각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밝힌 후 기술 경쟁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자율 주행 자동차의 인식 기술과 관련해 라이다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율 주행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밝히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에 사용된 기술을 열거하고 관련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필요한 3차원 정보가 활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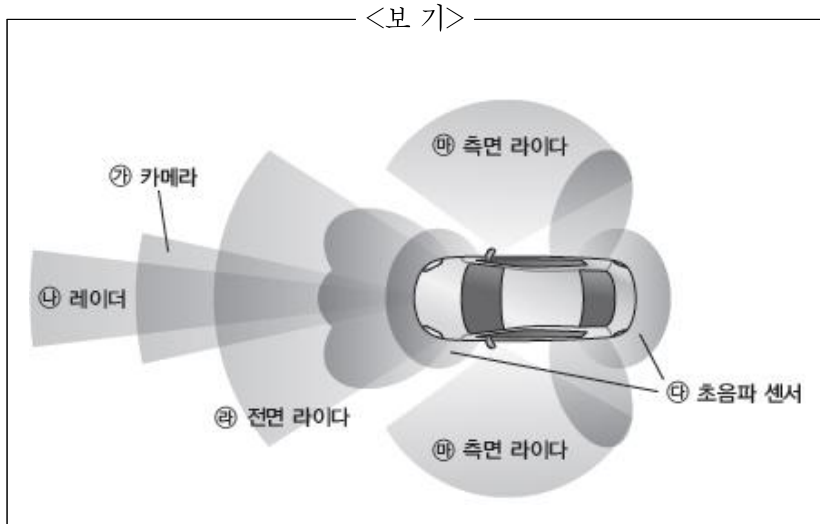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율 주행 자동차의 판단 기술에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활용된다.
- ②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개발 과정에서는 라이다의 소형화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 ③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정보가 필요하다.
- ④ 자율 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⑤ 자율 주행 자동차에 사용된 모든 센서들은 차량 주변의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기능이 있다.

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반사된 레이저 검출을 위한 광 검출기의 수가 적다.
- ② ㉠은 ㉡과 달리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수평 시야각이 제한된다.
- ③ ㉡은 ㉠에 비해 차량 주변의 3차원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360도의 수평 시야각에서 동시에 레이저가 수신된다.
- ⑤ ㉠과 ㉡은 모두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갈륨 화합물이 사용된다.

4. 윗글을 읽고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 ㉢와 달리 차선과 신호등의 색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은 ㉢에 비해 차량 주변에 물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더 길다.
- ③ 차량 후방에 ㉣를 장착하고 ㉡, ㉢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후진의 빈도와 경제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④ ㉡에 3D 플래시 라이다가 사용된다면 ㉠, ㉡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 ⑤ ㉡, ㉢는 각각 차량의 전면과 측면에 있는 장애물과 차량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5. ㉤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가. 3D 플래시 라이다에 비해 레이저 수신에 사용되는 고가의 광 검출기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 3D 레이저 스캐너에 영향을 미치는 차체의 진동이 제거되어 레이저 입출력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 기존의 3D 레이저 스캐너에 비해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져 장치의 소형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라. 3D 플래시 라이다와 같이 레이저를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여 물체에 반사되는 레이저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라
- ⑤ 나, 다, 라

6.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리킨다
- ② ㉡: 뛰어나지만
- ③ ㉢: 가늠하는
- ④ ㉣: 늘리고
- ⑤ ㉤: 이루어져

국어 영역

가. 시험의 성격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대학에서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중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나. 평가 목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므로 국어 영역의 내용 영역별 평가 목표는 각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된다.

1) 내용 영역

독서

- 독서 능력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의 국어생활 맥락과 비판적·창의적인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생활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 이를 위해 설명문·논설문·서사문·보고서·생활문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문학

-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이를 위해 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화법

- 화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발표·토의·토론 등에 자주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 다만, 선다형 지필 평가인 수능에서 실제적 화법 능력을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이 있더라도, 화법 영역에서는 출제 기법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화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아울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 이를 위해 대화·연설·면접·토론·협상·발표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담화 상황이나 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작문

- 작문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보고서·문서·논문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 다만 선다형 지필 평가인 수능에서 글을 쓰는 여러 과정에 대한 실제적 쓰기 능력을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이 있더라도, 작문 영역에서는 출제 기법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작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아울러 국어 규범에 기초한 작문 능력,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 이를 위해 정보 전달·설득·정서 표현·자기 성찰·배경 등 다양한 작문 상황(주제·목적·예상 독자)을 설정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문 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언어

- 언어 능력은 사고와 언어의 관계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어 능력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또한 사회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 언어 능력은 국어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국어 단위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국어 지식, 정확하고 적절한 국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국어 규범의 이해와 적용 능력, 국어사 지식 등을 측정한다.

- 매체

 - 매체 능력은 현대 사회의 언어 활동이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소통 방식 및 매체 언어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다양한 매체 언어를 수용, 생산, 향유하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 이를 위해 인쇄·전자·대중 매체 및 복합 양식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설정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매체 언어의 수준과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행동 영역

- 어휘·개념

 -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
 -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
- 사실적 이해

 - 말이나 글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한 파악 능력
 - 정보 간의 관계 파악 능력, 조직과 구조의 파악 능력
- 추론적 이해

 -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논리적 추론 능력
 -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 추론 능력
 - 전제나 논거의 추론 능력, 전후 관계 추론 능력
 - 필자의 견해·주장·의도 추론 능력
- 비판적 이해

 - 말이나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적절성·가치 및 우열을 평가하는 능력
 -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적 감상과 평가 능력
- 적용·창의

 -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한 내용 생성·조직·표현·수정 능력

다. 학습 방법

[독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의 관점 비교·분석하기

예시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략)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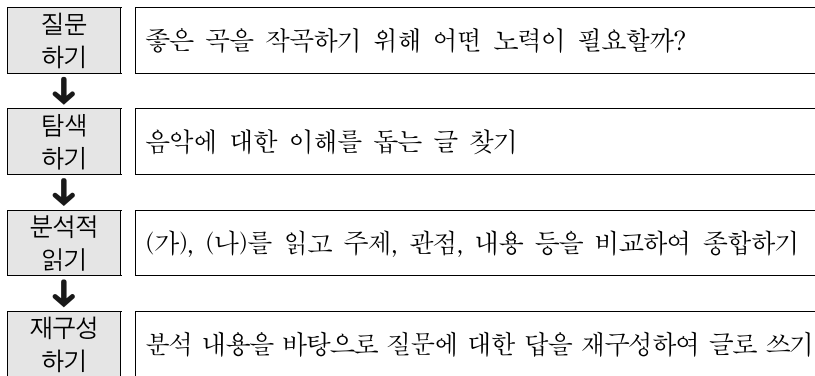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 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하략)

-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③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 ④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 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공통과목 21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독서 자료로 제시된 두 편의 글을 분석적·통합적으로 읽고, 독서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가), (나)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분석하며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주제 통합적 독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탐색하고, 찾은 자료 중 (가)와 (나)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적 읽기를 수행한 후, 분석 내용을 재구성하여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에는 (가)와 (나)를 비교·분석한 내용, 이를 바탕으로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의 첫째 문장에서는 두 글의 공통적인 요소를 진술하였고,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에 기반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글에서 확인되는 상호 텍스트성과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및 과정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에서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여러 글을 비판적·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독서 교과서 등을 통해 책이나 글이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다는 점과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및 과정 등을 이해하고,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독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 나타난 원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예시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충전과 방전을 ㉠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에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납 충전지의 공칭 전압은 2V, 니켈 충전지는 1.2V, 리튬 충전지는 3.6V이다.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중략)

충전지의 ㉢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대 충전 시간 방식에서는, 충전이 시작된 후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전류 적산 방식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의 충전 용량에 이르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충전 양이 만충전 용량의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여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는 단자 전압의 강하를 검출할 수 있으나 다른 충전지들의 경우는 이러한 전압 강하가 검출이 가능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단자 전압, 최대 온도, 온도 상승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측정된 값이 그 기준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 <보기>는 윗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장: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과충전 상태에 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원 2: 전류 적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장: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3: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충전하는 충전기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원 4: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온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주변 환경이 충전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준다면 충전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원 5: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은 모두 충전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 | |
|------------|------------|
| ① 부원 1의 의견 | ② 부원 2의 의견 |
| ③ 부원 3의 의견 | ④ 부원 4의 의견 |
| ⑤ 부원 5의 의견 | |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공통과목 32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과학적 원리나 기술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설명한 세 가지 충전 중단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거나 각 충전 중단 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부원 2'는 '충전 전류가 변할 때'와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로 나누어 실제 충전 양과 추정된 충전 양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지문에서 전류 적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며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을 충전 양으로 추정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충전 전류를 측정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가정하여 충전 양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는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이 같아지고, '충전 전류가 변할 때'에는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진다고 언급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보기>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적절성 판단하기,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내용 추론하기,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 대한 비판적 읽기 관련 요소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리나 기술에 대해 다룬 글을 읽고, 설명하고 있는 대상의 특성, 장·단점, 발달 또는 개선 과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며 그 원리나 기술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독서 교과서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과학적 원리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추론 및 비판하며 읽는 데 필요한 요소 등을 학습하고, 실제 독서 과정에서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파악한 후 정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 보는 연습,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점 등의 관점에서 글을 비판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상하기

예시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짜기도*** 전이다

어데서 **줍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어니젠가: 어느 사이엔가.

* 짜기도: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 가제: 갓. 방금.

*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든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지급한 때가 있었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군.
-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군.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공통과목 4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현대시 작품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와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대시의 양식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현대시 작품에 나타난 양식적 특성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에서 ‘산문시’와 ‘이야기시’는 각각 산문적, 서사적 특성을 지니지만 서정시의 특성인 ‘음악성’을 지님으로써 각각 산문, 서사와 구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 등으로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고, (나)에서는 문장의 종결어를 반복 혹은 변주함으로써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정시, 이야기시, 산문시 등 현대시의 다양한 갈래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현대시의 양식적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이러한 특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시의 양식적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서정 및 서사 갈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정시, 이야기시, 산문시 등 현대시 내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위 갈래들의 양식적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작품에 구현된 양식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기

예시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써여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름 다 도듯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슌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흐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좃지 마라 밤 스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쉼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줌즘흐더라

*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쉼심 단니노라: 찾으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판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운 입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뽀락 내리뽀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입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알밋고 잣미우라
낮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아 요리 납작 조
리 가웃하되 낮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뺨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
을 엉성거리고 쾅쾅 짚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
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 작자 미상, 「살구」 -

(하략)

㉡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입’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공통과목 25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특정한 고전시가 작품이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변화, 수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문학 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특정 작품이 놓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당대의 작품 향유 양상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라)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개 규칙’은 일본에 협조한 정미칠적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정미칠적과 일본에 우호적이었을 것이 분명한 한일신협약 자체를 비유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표현이므로 답은 ④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의미가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점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문학과 역사의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화법] 청중 분석을 통한 발표 내용 구성 및 수행하기

예시문항

-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복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처럼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요. 명태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만화 제시) 보신 것처럼 명천에 사는 어부 태 씨가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명태라니 흥미롭지요? 명태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평소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관심했던 명태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어 명태가 사라져 가는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태는 동해에 풍부하게 서식해 (도표 1 제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더니 200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 제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는 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남획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명태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해의 표층 온도 상승이 명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 찾아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보신 것처럼 명태는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해는 명태에게 불리한 바다 환경인 셈이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도별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간단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골라 한 화면에 제시) 첫 사진에 보이는 이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금을 걸 정도로 어렵게 명태를 확보한 연구진은 치어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 사진처럼 동해에 명태를 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적은 수지만 방류했던 명태가 잘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 바다에 명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우리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금지해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수산연구소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보기>를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학생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발표 전 청중 특성 분석	발표 중 청중 반응 분석
㉠ 명태에 대해 흥미가 적음.	㉡ 동해의 표층 온도와 명태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을 모름.	㉣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음.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원함.	

- ① ㉠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만화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을 고려하여,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실태를 알려 주기 위해 도표 1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을 고려하여,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도표 2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을 반영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을 반영하여, 발표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발표 전 준비한 사진 중 일부 사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36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청중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 과정에서 발표 내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학0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발표 전과 발표 중 두 단계로 제시된 청중 분석 내용과 실제 발표 내용을 비교하여, 계획 단계와 발표 수행 단계에서 활용한 발표 전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2문단에서 발표자는 “(도표 2 제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라며 도표 2를 활용해 명태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표 2는 <보기>의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원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과도 거리가 있으므로 학생이 계획한 발표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중 분석의 개념, 청중 분석 내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발표 전략, 발표에 사용된 매체의 내용 및 효과 파악 등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특성을 적절히 분석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청중 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청중 분석의 내용과 방법, 청중 분석 결과를 고려한 구체적인 발표 전략 등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발표 수행의 계획 단계에서는 청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표 전략을 세워 이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한 표현과 매체 활용 방법을 구상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실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발표 내용 및 전략을 조정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작문] 글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표현하기

예시문항

- (가)는 교지에 실을 조사 보고서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걷기’의 가치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 보고서

I. 조사 동기 및 목적

최근 사회에서 일고 있는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걷기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이 걷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II. 조사 계획

- 조사 대상: 우리 학교 학생 120명 및 일반 성인 75명
- 조사 기간 및 방법: 2020.5.10.~5.15., 설문지 조사
- 조사 내용: 걷기 실태 및 가치 인식

III. 조사 결과

1. 걷기 실태

‘이동 수단으로서의 걷기를 제외하고 30분 이상 걷기를 주 몇 회 하는가?’를 설문한 결과, 학생은 주 1회 이상의 비율이 10.0%에 불과한 반면 ○○공원에서 만난 성인은 44.0%로 나타났다. 학생과 달리 성인은 대부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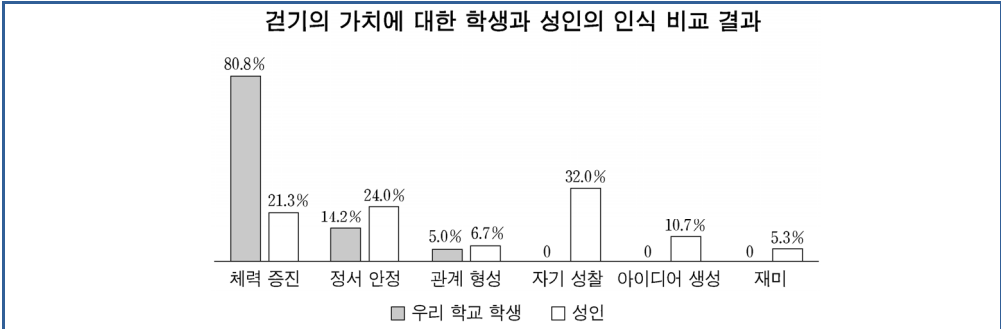
2. 걷기 가치 인식

가. 걷기의 가치 인식 여부

‘걷기가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91.7%, 성인은 92.0%가 각각 ‘그렇다’라고 답했다.

나. 걷기의 가치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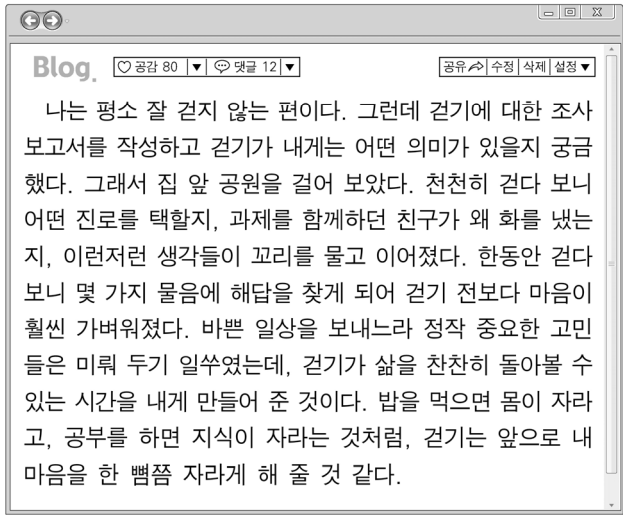
‘걷기의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은 학생이 ‘체력 증진(80.8%)’인 반면, 성인은 ‘자기 성찰(32.0%)’이었다. 이러한 성인의 응답은 걷기를 “바로 사색하는 것”(황△△, 『걷기 속 □□□』, ◇◇출판사, 2017, p.10.)이라고 보는 견해와 관련된다. 성인은 자기 성찰, 정서 안정, 체력 증진, 아이디어 생성 등 걷기의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한 반면, 학생은 걷기의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A]

(나)



○ <보기>의 ㉠~㉣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쓰기 윤리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선생님: 보고서를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요. 자료를 직접 조사한 경우 ㉠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 조사 결과를 과장, 축소,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과 자신의 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의 뒤에는 참고 문헌을 제시해야 하는데, ㉣ ‘참고 문헌’에는 보고서에서 인용한 모든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완성해 봅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45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보고하는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의사소통 윤리(쓰기 윤리)를 준수하며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학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12화학04-01」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기>를 통해 보고서 쓰기에서 지켜야 할 의사소통 윤리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윤리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글의 내용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에서 설명한 의사소통 윤리를 (가)에 적용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의 'Ⅲ.1. 견기 실태'에서 설문 결과에 대해 "○○ 공원에서 만난 성인은 44.0%로 나타났다. 학생과 달리 성인은 대부분 견기를 실천하고 있었다."와 같이 분석하였다. '44.0%'를 '대부분'이라고 해석한 것은 내용을 과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의 'Ⅳ. 결론' 뒤에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도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윤리 또는 쓰기 윤리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자료 분석 및 표현 방법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 특히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고하는 글에서 지켜야 할 의사소통 윤리(쓰기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글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보고하는 글 쓰기에서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설문 조사를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을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보고하는 글이 교수·학습 과정 또는 평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쓰기 윤리를 준수하면서 각 상황에 맞게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언어] 단어의 짜임 및 새말의 형성 과정에 대해 탐구하기

예시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높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6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합성어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와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제시한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 유형 분류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보기>에서 제시한 합성어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에서 밑줄 친 합성어의 어근들을 구분하고 각 문장의 의미 맥락에서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보기>의 ㉔에서 '날아가다'의 의미는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날아가다'의 의미는 합성어의 두 어근인 '날다'와 '가다'의 의미만으로 알 수 있으며 '날아가다'는 '가다'의 하위어에 해당하므로 '날아가다'는 종속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성어의 형성 방식과 단어의 의미 관계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성어의 형성 방식과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합성어의 유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등을 통해 다양한 단어의 의미 관계와 형성 방식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어를 이루는 하위 구성 요소를 적절히 구별하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매체]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구성 및 유통 방식 이해하기

예시문항

-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3면 2020년 2월 △△일 목요일 사회 제2456호 ○○신문

넘치는 '가짜 뉴스' ... 사실 왜곡과 사회적 갈등 유발 심각

누리소통망 통해 빠르게, 널리 퍼져
'사실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

㉠ '가짜 뉴스'가 날로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누리소통망의 발달 등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짜 뉴스의 파급력을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다. ○○에서는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 과정에서 매체 환경의 변화로 특히 뉴스의 생산과 유통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 기관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가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가짜 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언론은 정확하고 수준 높은 보도를 하고, 언론 소비자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기자 kimth@○○.co.kr

세계 도시 63% 하계 올림픽 개최 곤란
2050년... "지구 온난화 영향 탓"

30년 뒤에는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할 기가 세배를 전망하고, ○○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50년에는 세계 도시 중 약 63%의 도시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멈추려면,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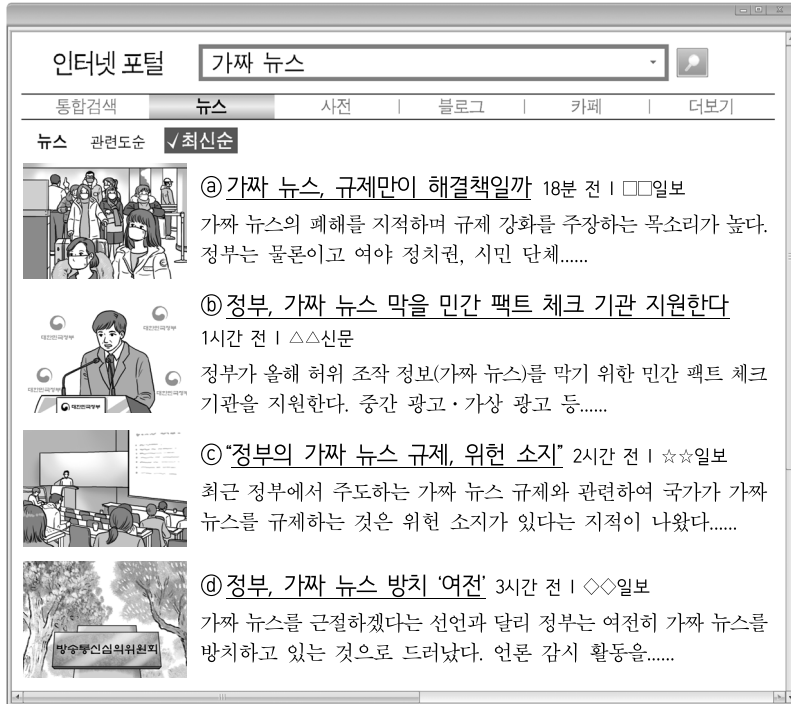
정○○ 기자 jung@○○.co.kr

미세 플라스틱, 1주에 신용카드 1장 삼켜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문제에 대한 실험도 있는 연구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박○○ 기자 park@○○.co.kr

(나)



-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 ㉣ 기사를 낸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할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한 것이겠군.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41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연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기>를 통해 매체 자료를 생산한 주체의 관점이 자료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의 내용이나 표현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에는 (가)에 실린 ‘지구 온난화’나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없고 ‘가짜 뉴스’ 관련 기사만 있다. 그러나 이는 검색어 입력에 따른 뉴스 제시라는 매체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자의 게이트 키핑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특성에 따른 정보 구성 및 유통 방식,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한 매체 자료의 수용 등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알고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이나 표현에 담긴 생산 주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사들이 뉴스의 형식을 통해 같은 사건을 전달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 표현, 편집 등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등을 통해 매체 특성에 따른 정보 구성 및 유통 방식 등을 이해하고 실제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이나 표현에 담긴 생산 주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